소년단

1961. 3

만경대

학교마다에 포도원을 만들며 나무를 심자!

← 학교 둘레에 포도원을 만드는 평북 곽산군 석동 중학교 소년단원 동무들.

↑ 황북 봉산군 정방 중학교 단 동무들은 나무 심는 데 떨쳐 나섰다.

포도 묘목을 가꾸는 방법

포도원을 만들자면 먼저 가을철에 꼬지아지로 쓸 아지들을 전지하여 단을 묶어 땅 속에 얼지 않도록 파묻습니다. (지난에 학교에서는 이런 준비들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올봄에 포도를 심자면 국영 혹은 조합 과수원들에 가서 꼬지가지들을 나누어 받아야 할 것입니다)

꼬지가지들을 심자면 1m의 간격으로 너비 50Cm, 깊이 25~30Cm 정도의 구덩이를 팝니다. 이 구덩이에는 1m의 길이에 20Kg의 퇴비와 과린산 석회, 그리고 염화가리 10g을 흙과 잘 섞어 밑거름으로 줍니다.

다음에 꼬지아지와 꼬지아지와의 사이가 10Cm 경사가 10~15도 정도로 눕혀 세우고 꼬지아지의 중간 부분까지 흙을 다져 넣은 다음 물을 줍니다. 그리고 다시 습기가 있는 부드러운 흙으로 꼬지아지의 위'부분까지 묻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꼬지아지의 눈이 땅보다 3~5Cm 높게 나와야 합니다. 꼬지가지에서 싹이 나오게 되고 계속 곁눈이 나오면 잎을 2~3매 정도 두고 9월 중순경 까지 순을 짤라야 합니다. 이렇게 기른 꼬지아지를 다음 해 봄에 다시 떠서 포도원을 만들 곳에 심어야 합니다.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가 되기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

소년단 1961년 3호 내용

동무들! 《소년단》 3호를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이번 호에서는 영예의 《모범분단》 칭호에 빛나는 해주 사미 중학교 단 김 민자 동무네 분단 (제8분단) 동무들의 자랑찬 이야기와 항상 나라의 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절약하는 데 모범인 자강도 희천 중학교 인민반 4학년 오 명숙 동무의 아름다운 이야기, 그리고 동무를 사랑하며 돕는 데 모범인 강원도 원산시 근로 중학교 단 분단 위원장 심 춘순 동무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동무들의 가슴을 들먹이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동단원 문섭의 그후 소식과 《첫 혁명 임무》를 훌륭히 수행한 아동단원 라 숙희 동무의 용감하고 슬기로운 이야기도 있지요.

그뿐이겠어요. 동무들이 즐겨할 재미나는 인형 영화 《신기한 복숭아》도 소개하지요. 그럼 어서들 펼쳐 보세요!

오직 붉은 집단을 위하여

분단 위원장　김 민자

《모범 분단》 칭호를 받은 황남 해주시
사미 중학교 단 제 7분단에서

글 최 옥선　　　　그림 유 환기

독자들이여!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하는 동시 하나를 소개한다. 그러나 이것을 우 윤식 동무가 머리 속에서 지어 낸 이야기라고 생각지 말라.

이것은 바로 영예로운 《모범 분단》 칭호를 받은 해주 사미 중학교 단 7 분단 동무들의 생활에 있는 보통 이야기의 한 토막이다.

개학날 아침

3 학년 우 윤식

눈보라는 사납게 창문을 치고
더더구나 뭇별이 총총한 새벽인데
우리 분단 동무들 모두 모였네
언제 누가 약속했나 이렇게 모이자고.

—난로는 내가 먼저 피워 놔야지
책상의 먼지도 털어 내야지—
저저마다 이런 마음 가슴에 품고
남 먼저 오느라고 달려 왔다네.

달리는 걸음마다 마음이 앞서
오늘 따라 학교'길이 먼것만 같아
줄달음쳐 달려 온 동무들마다
제일 먼저 왔노라고 장담했다네.

그러나 그러나 놀라지 말라
어느 새 난로는 불덩이 되고
마루를 닦고 있는 분단 위원장
우리더러 춥겠다고 불을 쬐라네.

불덩이로 달아 오른 난로보다도
우리들의 마음은 더 뜨겁다네
이 뜨겁고 뜨거운 가슴 속에서
《모범 분단》 그 이름이 더욱 빛나네.

어떻게하여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뜨거운가를 아래의 기사에서 자세히 알아 보기로하자!

1), 여러 학교에서 온 동무들

교실에 들어 서던 민자는 못박힌듯 서버렸다. 《우쭐대는 것이 분단 위원장인가?》하고 희전이와 재옥이가 민자의 시비를 느려 놓고 있는 것이였다.

민자는 생각할수록 안타까왔다. 민자는 곧장 교원실로 달려 갔다.

분단 지도원 선생님 앞에 선 민자의 두 눈에서는 주먹 같은 눈물이 떨어졌다.

다정하고 인자하신 분단 지도원 선생님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민자를 말없이 바라 보시더니 《민자, 왜 그러나?》하고 물으시였다.

《동무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민자는 더욱 울음이 북바쳐 그만 흐느끼여 울었다.

한참 말 없이 계시던 분단 지도원 선생님은 《거야 분단에 한 두 명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지. 분단 전체 동무들이 그럴 리야 있나. 그걸 가지구 크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민자!》

《선생님 그렇지만 요즘은 재옥이랑 순도랑도 민 희전이를 따라 다니며 애를 태웁니다.》

《위원들이 그래서 쓰나, 아직 처음이니까 그렇겠지, 그 애들은 다들 좋은 동무들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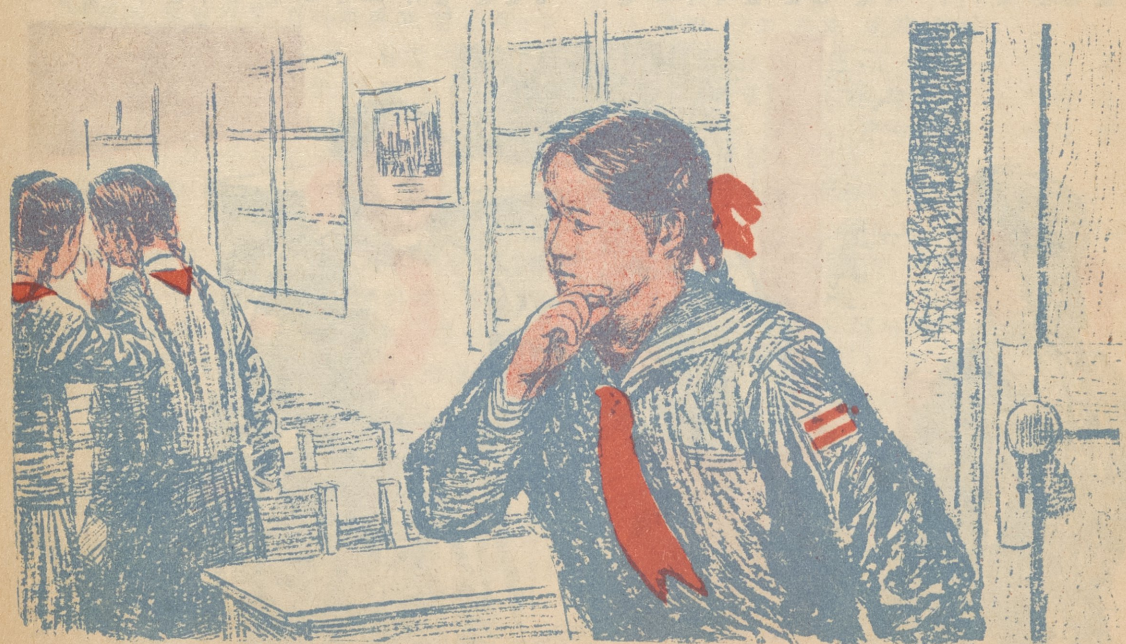
사미 중학교는 해주 고급 중학교에서 초급반이 따로 떨어져 나오면서 생긴 학교였기 때문에 7 분단은 여러 학교에서 모여 온 동무들로 조직되였다. 그리하여 동무들 속에서는 그전 학교 자랑을 느려 놓으면서 분단에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들떠 있는 동무들이 적지 않았다. 분단 위원장이 사업을 분공해도 말썽이 많았다. 민자는 안타까워 때로는 몇 몇 동무들을 충고한 일도 있었다.

그러자 그전에 부용 중 학교에 다닐 때 분단 위원을 했다는 민 희전이가 《분단 위원장이라고 잘하는 것이 뭐 있니, 나도 민자만침 공부도 하고 분단 사업도 그만침은 하겠다.》고 민자를 비웃으며 민자한데서 충고를 받은 몇몇 아이들을 모아 가지고 다니며 코를 세우고 말을 듣지 않았다.

하루는 분단에서 대수 실력 시험이 있었는데 민자와 몇몇 동무들만이 5 점을 맞고 희전이는 4 점을 맞았다. 희전이는 5 점 맞은 동무들을 심술 부리며 시비를 하는 것이였다.

그래 민자는 동무들 앞에서 희전이를 충고하면서 학습은 시험 점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사회주의 조국을 위해 훌륭히 일하기 위해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동무들이 공부 잘하는 것을 시비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그날 희전이는 자기와 같이 다니는 아이들과 함께 집에 돌아 가는 길'가에서 《분단 위원장이라고 우쭐대지 말어.》하고 대들어서 혼이 난 일까지 있었다.

분단 지도원 선생님은 눈물을 씻고 있는 민자의 손을 꼭 쥐고 교실로 데리고 와서 길 확실 언니가 락후한 사람들을 고쳐주던 이야기, 영화 《벗들이여 우리와 함께 가자》의 주인공인 김 사남 아저씨가 중국 반일 부대를 빨찌산으로 끌어 들인 이야기, 아동단원들이 어떻게 난관을 극복했는가 하는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주시였다. 《어때요. 우리 분단에서도 동무들이 한 마음이 되여 희전이나 그를 따라 다니는 아이들을 도와 그들이 자기 잘

못을 깨닫도록 해서 모범 분단을 만들어 야 하잖겠어요.》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난 민자는 선생님 앞에서 눈물을 흘린 것이 오히려 부끄럽게 생각되였다.

이날 집으로 돌아 오며 민자는 생각하였다. 《선생님 말씀이 옳아, 나도 항일 빨찌산들처럼 길 확실 언니처럼 사업 할 테야.》

2), 먼저 모범이 되였다.

언젠가 민자는 재옥이와 조용히 만났다.

《재옥아 너는 분단 위원이라는 애가 회전이를 따라 다니며 애를 먹이면 어쩌니…》

민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재옥이는 《너는 분단 위원장이면서 한 일이 뭐가? 쩍하면 짜증이나 내구》하고 뾰루퉁해서 대꾸하는 것이였다.

그날 민자는 자기가 해 온 일을 곰곰이 돌이켜 보았다.

《그렇다. 사실 내가 분단을 위해 몸바쳐 한 일이 무엇인가… 재옥이와 다르다면 그저 걱정을 하고 안타까와 울기나 했지 분단 동무들을 위해 한 일이 뭐란 말인가, 그러니 분단 동무들은 누구를 따라 마음을 붙인단 말인가, 아동단원들의 투쟁 정신을 본 받는다고는 했지만 실지 아동단원인 원주가 어떤 곤난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맡은 임무를 수행한 것처럼 모든 것을 분단을 위해 바칠 그런 준비가 되여 있었는가…》

강 명애

김 재하

민자는 자기가 몸소 모범을 보여야 하겠다고 결심하였다.

한 때 분단에서는 난로 당번이 항상 늦어 나와 시간 중에 연기를 피워 학습에 지장을 주는 일이 있었다. 민자는 우선 누구보다도 학교에 일찌기 나오기로 결심하였다. 다음 날 민자는 일찍 나와 난로'불을 뜨뜻이 피워 놓고 교실 안을 깨끗이 청소하였다.

민자가 청소를 끝내고 쓰레기를 들고 나가려는데 마침 난로 당번인 회전이며 분단 위원인 순도랑 6 반 동무들이 밀려 왔다.

누구보다도 분단 위원인 순도가 미안해 하며 《민자야, 쓰레기를 내가 내다 버릴게》하고 민자가 들고 있는 쓰레박을 잡아 당기였다.

민자는 다정한 말로 《일 없어 너희들은 춥겠는데 난로에 가서 불을 쪼여》하고는 쓰레박을 도로 빼앗아 들고 밖으로 나갔다.

따뜻한 난로'불에 몸을 녹이며 깨끗한 방안을 둘러 보는 6 반 동무들의 얼굴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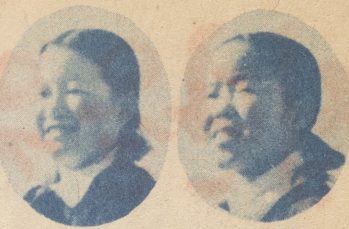
김 원자

리 정숙

리 순자

문 옥희

정 송자

리 효실

는 미안한 기색이 떠 돌았다.

이튿날은 분단 위원인 순도도 일찌기 학교에 나와 민자와 같이 불을 피웠다.

이런 날은 계속되여 드디여 전체 분단 위원들이 민자를 따라 나섰다.

전체 분단 동무들 속에서는 누가 한지 모르게 눈 온 날 아침 일찍 나와 운동장을 깨끗이 쓸어 놓는가 하면 깨여진 유리창을 곱게 바르고 교실에 새 비를 갖다 놓는 등 아름다운 일들이 날로 늘어갔다.

3), 그들의 후회

어느 날 학교에서는 대 청소가 벌려졌다. 이날 방과후 단 위원회에서는 분단 위원들을 전부 모아 놓고 위생 문화 사업을 잘하기 위해 경쟁을 걸고 등수를 정하자는 것이 토의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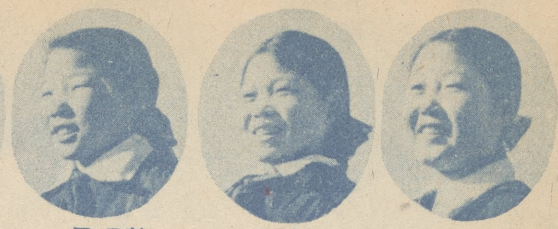
《우리 교실을 멋있게 한 번 꾸며보자.》 민자는 위원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숨이 차게 분단에 달려 왔다. 그러나 분단 동무들은 벌써 돌아 가고 없었다.

《어찌된 일인가? 기다리라고 했는데…》 분단 위원들은 모두 눈이 휘둥글해졌다. 《어떻게 할가?》 걱정을 하고 있는 사이에 회전이와 단짝인 재옥이는 온데 간데 없이 없어지고 분단을 위해 민자와 같이 늘 애를 쓰고 있는 유 숙자, 기 순도만이 남아 있었다.

잠시 생각에 잠겼던 민자는 《애들아! 우리 셋이서 교실 하나 깨끗하게 못 만들겠니, 멋 있게 청소를 해 놓자. 분단 동무들이 놀라게 말이야》하고 팔소매를 걷어 올리였다.

《그래 못 할 것 없어》 두 동무도 소매를 걷어 붙이고 달려 들었다.

민자는 난로 연기에 끄슬린 벽부터 회칠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애들아 날 따라 와.》

민자는 두 동무와 함께 학교 창고로 달려 갔다.

그들은 분주히 회'가루를 날라 온다, 비를 구해 온다, 물을 길어 온다 야단이였다.

신이 나서 회칠을 하고 있는 동무들의 머리칼은 할머니처럼 하얗게 되고 옷도 어지러워졌다. 그러나 그런 것을 생각할 사이가 없었다. 그들은 모두 제법 미장공이나 된 것처럼 손을 번개 같이 놀리며 회칠을 하고 있었다.

이때 마침 책을 잊고 간 것이 있어 다시 학교에 나오던 재옥이는 출입 문을 들어서려다 깜짝 놀라 걸음을 멈추었다.

남 먼저 힘든 일을 하려고 회를 담은 바께쯔를 들고 부지런히 이리 뛰고 저리 뛰고하는 민자의 모습을 바라 보는 재옥이는 민자 보기가 부끄러워 참아 교실에 들어 갈 수 없었다.

이때 마침 민자가 물 길러 바께쯔를 들고 나왔다. 《아니 네가?!》 민자가 놀라며 우뚝 서자 재옥이는 얼굴을 숙인 채 《내가 길어 올테야》하고 어느 새 바께쯔를 빼앗아 들고 수도'가로 달려 갔다.

교실은 몰라보게 달라졌다. 힘은 들었지만 자기들의 일한 보람을 느끼며 이날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 가는 이들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이튿날 아침 조회 때 7 분단 교실이 위생 검열에서 1 등이라고 칭찬을 받았다.

분단 동무들은 모두 기뻐서 어쩔 줄 몰라하였다.

《분단 위원들이 얼마나 수고했겠니…민자는 정말 멋 있어.》

《그러기 우리 분단이 늘 칭찬 받지.》

《우리는 공연히 불평을 부리군 했어, 민자는 참 좋은 애야.》

《어제는 회전인지 〈왈패〉지 그 아이가 제가 집에 가고 싶

김 숙자　정 순희　박 정옥　김 영숙　기 순도　강 형숙

으니까 거짓말했다지 않어》

이렇게 말하는 분단 동무들은 마음 속으로 지난 날 자기들의 행동을 후회하는 것이였다.

3), 한 동무를 위해

위생 검열이 있은 방과 후였다. 민자는 동무들 앞에 나가서 《어제 교실을 깨끗이 만들어 분단의 영예를 떨친 것은 재옥이와 순도 동무의 노력의 결과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재옥이는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아닙니다. 분단 위원장이 다 한 일이지 우리는 한 일이 없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때 의자에 기대여 길게 앉아 있던 희전이가 《칭찬 받아서 좋겠는데》하고 비웃는 것이였다.

《뭐? 어째!》 전체 분단 동무들이 희전에게로 날카로운 눈을 돌리였다. 성미가 급한 명숙이는 벌떡 일어나 《희전아, 너는 양심도 없는 아이야. 어제 거짓말을 해서 분단 위원들만 수고시키고도 자기 잘 못을 뉘우칠 대신 그따위 소릴하고 있어.》

동무들이이렇게떠들자 희전이는 고개를 수그리기는하면서도《여태까지분단 위원장이이렁구저렁구하던아이들이금시 한짝이돼서 그러는게 늬끌스러워 그런다.》하고 역시 비꼬는 말투로 말하는것이였다.

이때 재옥이는 얼굴을 붉히면서도 무엇을 결심한 듯 벌떡 일어났다. 그는 희전이를 향해 《분단 위원장하구 친한 것이 무엇이 나쁘단 말이가》하고 대들었다.

걱정스러운 얼굴로 두 동무를 바라 보던 민자는 《재옥아, 그러지말어 있다가 조용히 말하자.》하고 그들을 말리였다.

《아니야, 이제 다 말하겠어, 동무들… 참말 나는 분단 위원 자격이 없습니다.》 그는 눈물이 글썽해서 자기의 지난 날을 이야기하였다.

재옥이는 처음 7 분단에 와서 한 마을에 사는 희전이와 친하게 되였다. 그때 재옥이는 분단 위원장이 어떤 아이인지도 몰랐다. 그래 희전이가 민자를 시비하면 그저 결따라 한 편을 들군하였다.

그때만 해도 희전이가 분단 위원장에 대해 시비하는 것을 직접 들었지만 뱃이 센 희전이가 두려워 말하지 못했다.

《분단 위원장에 대해 늘 시비 한것도 희전이였습니다. 난 말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참말…》하고 재옥이는 말끝을 맺지 못하였다.

이 말을 듣자 동무들은 더욱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모든 동무들이 자기를 나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희전이는 한참 어쩔 줄 몰라 시근거리더니 《내가 없으면 다 잘 되겠구나》하고 책보를 꺼내 싸기 시작하였다.

희전이는 붙잡는 민자를 뿌리치고 나가 버렸다.

이튿날 희전이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걱정을 하고 있던 민자는 분단 지도원 선생님을 찾아가 의논했고 분단 위원들과 같이 희전이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의논했다. 분단 위원들도 모두 희전이는 암만해도 자기 잘 못을 모르는 아이라고 말하였다. 말 없이 앉아 듣던 민자는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렇다고 우리가 희전이를 따 돌려서는 안 돼, 우리가 〈만경대〉를 읽고 잘 알고 있지만 김 일성 원수님은 어렸을 때 나쁜 아이라고 따 돌리는 법 없이 더 따뜻이 대해 주고 타일러 주셨다지 안아. 우리 전체 분단 동무들이 그렇게 힘 쓴다면 한 동무를 못 고쳐 주겠니》하고 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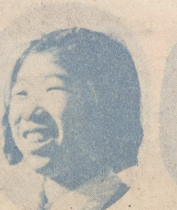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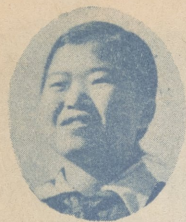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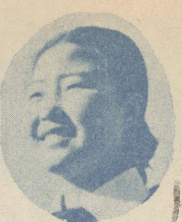
민자의 말을 듣고 난 분단 위원들은 《민자의 말이 옳아》하고 말하였다.

그후 분단에서는 영화 《준령을 넘어서》에 대한 감상 모임을 가지게 되였다.

민자와 분단 위원들은 혁명 투사들은 어려운 순간일수록 동지를 도왔는데 자기들은 희전이를 그렇게 돕지 못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면서 분단 동무들도 모두 희전이를 나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친하게 지내면서 고쳐 주자고 이야기 하

리 종렬　리 용숙　김 경숙　유 순애　조 영숙　박 광주

로 찬옥

박 옥련

강 영순

백 온순

안 춘자

전 명숙

였다.

이 모임에서 민자는 희전이를 돕기 위해 희전이가 속해 있는 6 반에서 같이 반 생활을 하겠다고 동무들 앞에서 결심을 말하였다.

저녁이 되자 비가 막 내리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민자는 분단 위원들과 같이 개울을 건너 희전이네 집을 찾아 갔다.

희전이를 찾아 간 민자와 동무들의 옷은 함박 젖어서 물이 흘렀다.

희전이의 얼굴에는 뜻하지 않은 일에 좀 놀래는 기색이 어렸으나 《옳지, 너희들이 나를 떠보려 왔구나》하고 아니꼽게 생각하는 빛이 떠올랐다.

이때 마침 희전이 어머니가 부엌에서 들어 오시였다.

《아니, 이 비오는 날에 찾아까지 왔구나, 내 그러지 않아도 학교에 가보려던 참인데 글쎄 우리 희전이가 왜 그러니》하며 동무들을 바라 보았다.

민자는 웃으면서 《어머니, 우리가 잘 못했어요. 우리가 희전이의 마음을 알아 주지 못했어요.》하고 어머니에게 이야기하였다.

재옥이도 순도도 모두 희전이더러 지난 날을 생각지 말고 분단을 위해 같이 손잡고 공부하자고 말하였다.

희전이는 자기를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 주는 것이 여간 기쁘지 않았다.

그래 그는 《래일 학교에 나가겠어》하고 말하였다.

민자는 다른 동무들을 다 보내고 혼자 남아 희전이가 결석하여 밀린 학습을 도와 노트를 정리해 주고 하나 하나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이튿날 물리 실력 시험이 있다고 하면서 물리 복습 문제를 밤 늦도록 같이 토론하고 설명해 주었다. 민자는 자기가 설명해 주는 문제를 희전이가 알아차리고 기뻐할 때 《희전아, 우리 둘이 다 같이 5 점을 맞자, 응》하고 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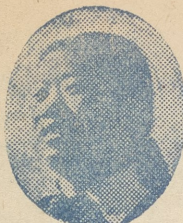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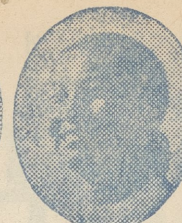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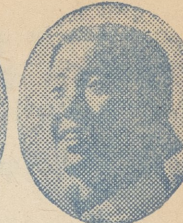
림 수자

박 영자

민 희전

전 옥자

김 대정

김 인해

이때 희전이는 지난 날 민자가 최우등을 하면 시비를 하던 것이 몹시 부끄럽게 생각되여 낯을 붉히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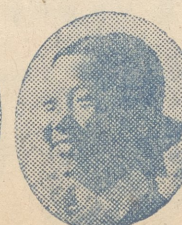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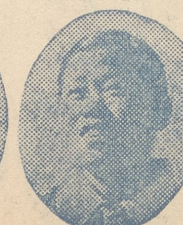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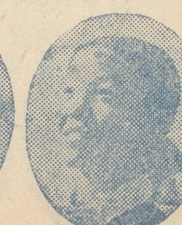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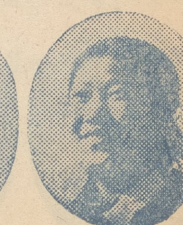
민자는 날마다 희전이를 찾아 가서 함께 학교에 왔다. 그리고 희전이가 토끼 기르기를 좋아하는 것을 알고 있던 민자는 반 동무들과 의논해서 반의 새끼밴 암토끼를 희전이가 맡아 기르게하였다.

민자는 희전이가 될수록 동무들과 가까와지고 동무들의 신임을 받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하루 아침 동무들과 같이 일찍 나와 마루를 닦고 있던 희전이는 학습에 뒤떨어진 전 옥자가 사방을 살피며 정신 없이 무엇을 옮겨 베끼는 것을 보았다. 아침 첫 시간이 대수 시간이였는데 대수 숙제를 하지 못하고 와서 남의 것을 베끼는 모양이였다.

희전이는 이때 둘이 다 같이 5 점을 맞자고 하면서 자기 학습을 밤 늦도록 진심으로 도와 준 민자를 생각하며 《나도 옥자의 학습을 진심으로 도와 주자》고 생각하였다. 희전이는 마루를 닦던 일'손을 멈추고 옥자의 곁으로 가서 열심히 설명해 주었다.

마루를 열심히 닦고 있던 민자는 어떤 두 동무가 복도 끝에서 무엇인가 도란 도란 토론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누굴가?》하고 가 보니 희전이였다. 희전이는 민자가 곁에 간 것도 모르고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다.

설명을 끝내고 일어 서던 희전이는 민자를 보자 얼굴을 붉히며 《옥자가 선생님한테 책망들을 것만 생각하고 남의 숙제를 막 베끼고 있지 않겠니, 그래 바라보다 못해 설명해 주었어》하고 말하는 것이였다.

민자는 기뻐하며 《너는 오늘 참 좋은 일을 했어. 옥자를 진심으로 도와 주었으니…》하고 말하였다.

이날 분단 벽보에는 희전이가 옥자의 학습을 도운 이야기가 실려졌다. 희전이는 날마다 옥자의 학습을 도와 주었다. 집에도 찾아 가 같이 공부하기도 하고 방과후에도 늦도록 그날 배운 문제를 그날에 깨우쳐 주군하여 우등의 성적을 거두게까지 되였다.

희전이가 기르던 토끼는 11 마리의 새끼를 낳았다. 토끼들은 잘 자랐다.

희전이는 토끼 사양에 대한 책을 열심히 공부하였다. 분단 동무들은 그를 《토끼 박사》라고 불렀다.

이럴 때 마침 소년 신문 기자 선생님이 학교에 오시였다.

민자는 기자 선생님께 희전이가 토끼를 훌륭히 기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그리하여 희전이의 이야기가 《소년 신문》에 실리였다. 민자는 제일처럼 기뻤다. 그는 저도 모르게 달려가 동무들 앞에서 큰 소리로 신문을 읽어 주었다.

분단 동무들은 저마다 손벽을 치며 기뻐하였다.

안 병화

최 윤실

백 정자

김 순애

소 영숙

윤 옥순

희전이의 두 눈에는 눈물이 어리였다.

《민자는 참 좋은 애야 그런 애를 난…
난 참 바보였어.》

4). 모두가 한 마음 한 뜻

어느날 학교에서 약 10 리 떨어진 곳에 파유리며 각종 폐품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였다.

분단 위원들만이 떠나려 하였으나 어느새 알아 차렸는지 분단 동무들이 절반 이상이나 따라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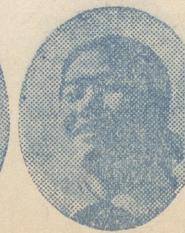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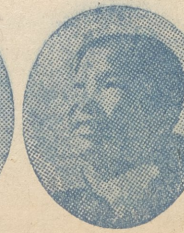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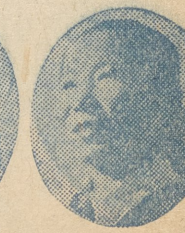
폐품을 모아 가지고 돌아 오다 어느 옛 집터에서 벽돌 무지를 발견하였다. 동무들은 분단 꽃밭 만드는 데 쓰자고 하면서 어둡도록 파냈다.

모든 동무들이 벽돌이며 폐품을 머리에 이고 지고 떠났다. 그때 어쩐지 민자는 갑자기 열이 나고 몸이 아파났다. 그는 조금도 아픈 내색을 내지 않으려 했지만 그걸 동무들이 모를 리가 없었다. 동무들은 저마다 민자의 짐을 빼앗아 이려하였다. 그러나 민자는 짐을 내놓지 않았다. 결심한 일은 끝내 해 내고야 마는 민자의 성미를 잘 알고 있는 동무들은 더 말하지 못하였다.

동무들은 서로 의논하던 끝에 우묵한 구뎅이를 발견하고 자기들도 어두워 힘이 든다고 하면서 구뎅이에 두었다가 이튿날 저녁에 와서 가져가자고 말하였다.

민자는 자기 몸이 아픈 것도 있지만 동무들이 역시 힘들 것을 생각해서 그 의견에 찬성하였다.

이튿날 아침 민자는 일찌기 학교에 나왔다.

그러나 교실에는 동무들이 한 명도 없었다. 너무 이르게 나온 탓인가 하고 생각도 했으나 다른 분단 동무들은 벌써 와서 왁짝 떠들고 있었다.

《웬 일일가? 옳지 그렇겠지》하고 어제 일이 생각 나서 막 달려 가려는데 벌써 저 멀리서 귀에 익은 동무들의 노래 소리가 들려 왔다.

민자는 동무들이 들어 오고 있는 정문으로 힘껏 달려 갔다.

달려 오는 민자를 본 분단 동무들은 노래를 멈추고 《민자야!》하고 소리쳤다.

민자는 눈 시울이 뜨거워졌다. 폐품과 벽돌을 저마다 이고 들고 하였는데 어느 누구의 것을 받아 주었으면 좋을지 몰라 그만 벙벙해 서버리고 말았다.

《민자야 일 없어, 너 이젠 아프지 않니?》 앞장 서 오던 희전이의 말이였다.

《아니 일 없어》하고 대답하며 민자는 희전이가 인 짐을 덥석 빼앗아 들었다.

이리하여 교실 앞에는 한 무지의 폐품과 벽돌더미가 생겨 났다.

이 날도 그들은 아침에 가자고 약속한 일도 없었지만 한 동무도 빠짐없이 일찍 나왔던 것이다.

이처럼 한 마음으로 뭉친 이 분단에서는 출석률은 늘 100%이고 우등 최우등은 날로 늘어가고 있다.

그들은 이 번 2학기 말까지는 모두가 우등, 최우등이 되자고 결의하고 있다.

모범 분단이 되자고 결의한 날부터 불과 3 개월 동안에 민자와 분단 전체 동무들은 1,500 가지의 가지 가지 아름다운 이야기를 자기들의 붉은 마음 수첩에 적어 넣었다.

누구든지 민자네 분단에 가서 물어 보라! 《만경대》, 《항일 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기》,《혁명을 위하여》, 《당을 따른 어린 투사들》 등 항일 빨찌산의 투쟁 이야기를 모르는 동무는 없다. 그리고 모두가 그 분들처럼 배우며 일하며 생활하면서 조국 앞날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당과 원수님의 어린 붉은 전사로 씩씩하게 배우며 준비해 나가고 있다.

유 숙자 강 은숙 한 추자 김 재옥 경 옥히 박 영순

글 리 원우 그림 백 대진

연길에 항일 유격대들이 일어나 활동하던 때였다.

열 두살 난 라 숙희 소녀는 의란구 마을에서 한 15 리 떨어져 있는 어느 산간 벽촌에 살고 있었다. 하루는 아동단 지도원 최 선생이 밤 모임 끝에 라 숙희 소녀를 남아 있게 한 다음 나즈막하면서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남으라고 한건》 하고 말했다.

《너는 늘 말하군 했지. 어서 커서 어른이 되거들랑 아버지 어머니의 원쑤를 갚겠다고……》

순간 2년전 열 살 나던 해 가을 일제 놈들이 지른 불에 타 죽은 아버지와 어머니 생각이 났다.

그때 원쑤놈들은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마을 젊은 이들이 어느 집에 모여 회의를 하고 있는 것을 불의 습격하고 나서 불까지 질렀던 것이다.

변절자 한 놈이 고자질 한 것을 모르고 회의를 하다가 그런 봉변을 당했던 것이다.

고아로 된 라 숙희는 아버지와 같이 혁명을 하던 아저씨를 아버지로 삼고 그 집에서 살며 그후 아동단에 입단했다.

라 숙희 머리에서는 자나 깨나 부모들의 원쑤를 어떻게 갚을가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아동단에서 무슨 모임이 있을 때나 동무들 끼리 서로 말을 주고 받을 때면 〈어서 커서 어른이 되거들랑〉 이라는 말을 잘 했다.

그 말 뒤엔 원쑤놈들에 대한 증오심이 끓고 있었다. 그런데 최 선생이 모임 끝에 남으라고 하더니 웃음 어린 눈으로 숙희를 처다보며

《동무는 늘 말했지, 아버지 어머니의 원쑤를 갚겠다고 말

이지》 하고 말한 바람에 숙회는 가슴이 뭉클 하는걸 느끼며

《네》하고 대답했다.

최 선생은 치마를 만지작거리며 눈물이 그렁해 서 있는 숙회를 와락 자기 앞으로 끌어 당겨 두 팔을 감아 안은 다음 한참 서 있다가

《자 그럼 이걸 받아라》

하고 말하며 네모나게 접은 조그마한 종이 쪽지를 손에 쥐여 주며 말했다.

이건 아동단 이름으로 네게 주는 첫 혁명 임무이다. 래일은 의란구 장날이다. 이걸 장'거리에서 감 파는 가개방 아저씨께 전하고 오너라》

최 선생은 잠간 동안 말 없이 서 계시다가 또 계속했다.

《그 종이 쪽지를 감 파는 가개'방 아저씨께 전하려 가는 일은 부모의 원쑤를 갚기 위한 일로 된다는 걸 알아야 한다. 그 종이 쪽지로 말하면 중요한 혁명 문건이다. 놈들에게 들어나지 않게 잘 간수해 가지고 가야한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무한테도 말해서는 안된다. 네가 하는 일은 절대 비밀에 부쳐야 한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 물어 봐도 말해서는 안 된다. 알겠니》

《네》

《그럼 어서 돌아 가서 자고 래일 아침 일찍 떠나거라, 가고 오고 30 리다.》

《네》

숙회는 최 선생님에게 인사를 하고 나오려다 말고 한마디 물었다.

《그런데 종이 쪽지를 어떻게 감추어 가지고 가야 합니까?》

《옳지 그야 방법이 여러가지 있지. 옷고름이나 동정, 저고리 섶 안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도 있겠고. 그러나 래일이 장날이지. 옳지 그렇게 하자 바구니에 파나 배추를 담아 가지고 팔러 가는 시늉을 하거든, 그리고 이 종이 쪽지일랑 굵은 파속에 슬적 넣어 가지고 간단 말이다. 어떻냐 그러면 혹 경찰놈들에게 맞다들어도 그걸 알락이 없을게 아니냐.》

최 선생에게서 자세한 말씀을 들었지만 그러나 숙회는 그날 밤 가슴이 울렁거려 끄박 뜬 눈으로 새웠다.

처음으로 그런 어렵고도 영예로운 임무를 받았다는 기쁨도 컸지만 그러나 한편 원쑤놈들에게 들어 나지 않을가 하는 생각으로 자면 말면했다.

어쩌다 살포시 잠이 들었다. 그런데 잰내비 새끼 같은 왜놈 헌병 한 놈이 자기를 노려 보며 걸어 오더니 소리쳤다.

《요놈 내가 다 안다. 저고리 동정을 냉큼 뜯어라. 거기 감췄지》

그 바람에 아이쿠메 하고 눈을 떠 보니 꿈이였다.

《누가 동정 속에 감춰 가지고 가나뭐…》

한번은 또 어쩌다 살포시 잠이 들었는데 이번엔 장대처럼 키가 큰 괴뢰 경관 한놈이 시물시물 웃으면서 걸어 오더니 소리쳤다.

《앙큼한 년 어서 짚새기를 벗엇! 내가 모를 줄 알구…》

그 바람에 소스라쳐 깨여나기도 했다.

비밀 문건을 처음 가지고 가는 그였기 때문에 혹 놈들의 눈에 발각이나 되면 어떨가 하는 생각에, 밤새 자면 말면 했다.

들창문이 훤—해 오는 새벽에 숙회는 자리를 차고 일어나 부시럭 부시럭 길 떠날 차비를 했다. 그 때 아래'방에서 주무시고 계시던 양아버지가 쿨럭쿨럭 기침을 기츠면서 일어나 앉더니 물었다.

《너 어딜 새벽부터 가니?》

《오늘 우리 아동단에서 모두 일찌기 모이자고 했어요. 무슨 중요한 일이 있다고요.》

《그래 무슨 중요한 일이 있을가?》

숙회는 그만 말 문이 꽉 막히고 말았다. 뭐라고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 것인가? 친 아버지 못지 않게 아니 친 아버지 이상으로 자기를 사랑하여 오늘까지 길러 주는 양 아버지에게 어떻게 거짓 말을 할 수 있는가? 그렇다고 선생님 말씀을 어기고 비밀을 이야기할 수도 없지 않는가? 아니 아버지 보고 말하는 것이야 비밀을 말하는 것으로 되지 않을지도 모르지. 그러나 선생님은 아무리 친한 사람한테라도 이 비밀만은 말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 않았는가.

《아침 식사도 하기 전 첫 새벽부터 무슨 일이람?》

아버지가 재차 묻는 바람에 그만 정신이 펄쩍 들어 씩씩하게 대답했다.

《아버지 일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양 아버지는 더 묻지 않고 담배를 한대 피우고 나서 자리에 다시 누웠다. 양아버지가 노하신 것 같아 숙회는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속으로 부르짖었다.

《아버지 저는 오늘부터 원쑤를 갚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비밀 문건을 가지고 련락을 갑니다. 제발 장엔 왜 가느냐고 묻지 말아 주세요. 정직하게 대답하여 선생님의 말씀을 어길가 봐 그럽니다…》

숙회는 부엌으로 내려가 바구니에 배추 포기들과 파 한단을 담았다. 퉁소대 만큼 굵은 푸른 파 잎들은 보기만 해도 탐스러웠다. 그는 최 선생이 가르쳐 주신대로 그 어느 파 잎 구멍 속에 종이 쪽지를 넣었다.

배추 포기와 파를 담은 바구니를 이고 마을을 벗어난 숙회는 큰 길을 걸어 가고 있었다.

의란구 장터로 뻗은 큰 길은 장보려 가는 사람들로 들끓었다. 그런데 장터로 들어 가는 문 어구에서 사람들이 웅성 거리고 있는 것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다. 사람들 머리 우로 경관놈들의 모자 채양이 해'빛에 번쩍이고 있었다. 경관놈 한 놈이 시장 문 어구에 서서 드나 드는 사람들의 얼굴을 살펴 보기도 하고 물건들을 헤쳐 보기도 하고 몸을 쓸어 보기도 하면서 팩팩 거리고 있었다.

그렇다고 미리 겁을 집어 먹고 돌아 설 수는 없었다. 돌아 서다 들킨다는 것은 서투른 일이며 비겁한 일로 될 것이다. 숙회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종이 쪽지를 넣은 파를 한 손에 들고 푸른 잎사귀 한 끝을 입으로 뭉턱뭉턱 잘라 먹는 시늉을 하며 사람들의 뒤를 따라 성큼성큼 시장 문으로 들어 갔다. 그 때 우락부락하게 생긴 키꺽다리 경관놈이 숙회가 낀 바구니를 덥썩 잡아 채며

《네 말이 옳다. 너는 정말 오늘 시험에 합격되였다》

《이건 뭐야》하고 호통을 쳤다.

숙희는 입안에 파 잎사귀가 그득한 것처럼 한참 두 볼이 불룩하여 불이 나게 씹다가 꿀꺽 삼키는 시늉을 하고 나서

《배추 쬐끔하고 파 쬐끔이예요》하고 말했다. 그리고는 손에 든 파 잎사귀를 또 한 입 뭉텅 잘라 먹었다.

《어디 보자.》

키꺽다리 경관놈은 잡아 챈 바구니를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구두'발로 파 단과 배추 포기들을 헤집어 봤다. 숙희는 엉엉 울며 엄살을 했다. 그러면서도 손에 든 파 잎사귀를 연방 뭉텅 뭉텅 잘라 먹는 시늉을 했다.

광주리를 내동댕이 치고 구두'발로 헤쳐 봐야 다른 것이 없는 것을 본 키꺽다리 경관놈은 어서 담아 가지고 가라고 호통쳤다.

숙희는 손에 들고 먹던 파 한대를 바구니에 꾁 쨍게쳐 넣은 다음 그 우에 배추 포기들과 흩어진 파들을 주어 담아 이고 장거리로 들어가 감을 파는 가개를 찾아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했다.

얼마 뒤 감을 파는 감 가개 아저씨를 만나 그 종이 쪽지를 전했다. 감 몇알을 얻어 먹고 돌아 서려는데 감 가개 아저씨가 하는 말이

《돌아 가거든 최 선생님 보고 오늘 시험엔 합격 됐다》고 말하라고 일러 주었다.

해질 무렵 마을로 돌아 온 숙희는 첫 임무를 수행한 기쁨을 보고하기 위하여 최 선생을 찾아 갔다. 마침 최 선생이 계셨다.

숙희는 아동단 경례를 데꺽 부치고 나서 첫 임무를 수행한 보고를 씩씩한 목소리로 하였다.

《보고 〈오늘 시험엔 합격 됐다〉고 감 가개 아저씨는 말했습니다.》

《네 말이 맞았다. 너는 정말 오늘 시험에 합격 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최 선생은 빙그레 웃었다. 그때 사이'문이 더르르 열리며 숙희 양 아버지가 들어 서며 말했다.

《오늘 시험엔 정말 너는 합격했다. 너는 오늘 새벽에 나 한테도 비밀을 말하지 않았으며 그것을 감 가개 아저씨에게 전하고 돌아 왔다. 너는 첫 혁명 임무를 훌륭히 해냈다.》

숙희는 자기 아버지에게도 아동단 경례를 데꺽 부치며 말했다.

《아버지! 그럼 아버지께선 벌써 알고 계셨습니까?》

최 선생과 아버지는 껄껄 웃었다.

최 선생이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숙희야 너는 오늘 첫 혁명 임무를 수행했을 따름이다. 그러나 너는 명심해라. 앞으로 네 앞에는 그보다 몇 배나 더 크고 더 어려운 혁명 임무가 차례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넷!》 차렷하고 다시 한번 데꺽 손을 들어 아동단 경례를 하는 숙희의 두 눈은 새'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는 첫 아동단원이였다 (2)

글. 박응호
그림. 최순천

(10) 문섭이는 눈 앞이 아찔하여 졌다. 그는 무서움 보다도 어린 애 생각이 앞섰다.

얼핏 불'길에 훤쨍인 골목이 눈에 띄였다. 문섭이는 왜놈이 달려 드는 순간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골목'길로 뛰여 들었다.

(11) 뒤에서 두 세방 총소리가 난 듯 하였으나 문섭이는 그것도 듣지 못하고 불'길과 연기 속을 내달았다.

그가 어린 아이가 놀고 있던 뜰 안으로 달려 들었을 때 거기는 이미 무서운 불'길이 회오리치며 돌아 가고 있었다.

(12) 문섭이는 정신없이 불'길과 연기 속을 헤매였다. 왜놈들은 닥치는 대로 인민들을 학살하기에 미쳐 날뛰였다.

뜨거운 열'기가 확확 풍겨 와 숨도 쉴 수 없었다. 문섭이는 기진하였다. 바로 이때였다. 누군가 연기 속에서 달려 와 그를 덥석 끌어 안았다. 춘삼이였다. 그는 어린 아이를 구원한 후 다시 문섭이를 구하려 달려 온 것이다.

(13) 그날 밤이였다. 문섭이는 자기가 저질은 일에 대하여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춘삼이가 그의 곁으로 다가 왔다.

《문섭아! 오늘 있은 일은 모두 조직이 준 위임을 잊었기 때문에 생긴 일이야! 잘못을 깨달으면 됐어, 다시는 그러지 말어. 어떤 일이건 이것이 조직이 준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실수란 있을 수 없어!》

(14) 이 일은 문섭이에게 큰 충동을 주었다. 그 때로부터 그는 어떤 적은 일이라 할지라도 조직이 주는 일이라면 기어히 해 내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어느 날 분대는 부락 인민들을 돕는 일에 동원되였다. 아이들은 대렬을 지어 노래하며 부락을 향해 걸어 갔다.

(15) 이 날 문섭이는 화상을 입은 것이 채 낫지를 않아 밭 일을 나간 후방 가족들의 어린 아이들을 돌보라는 분공을 받았다. 춘삼이가 문섭이를 대렬에서 불러 내여 이 과업을 주었을 때 문섭이는 좀 언짢은 얼굴이였다. 밤낮 녀자 애들처럼 아이보개만 하겠느냐는 듯… 춘삼이가 이것도 중요한 조직의 위임 임을 거듭 말해 주어서야 문섭이는 그것을 깨달았다.

(16) 문섭이는 단단한 마음을 먹고 여섯 명의 어린 아이들을 돌보았다. 그는 아이들의 머리도 감겨 주었고 손톱 발톱까지 말끔히 깎아 주었다.

그는 이 일을 하면서도 나는 지금 조직이 준 위임을 수행한다는 생각을 하였다. 지어는 아이의 코를 훔쳐 주는 일까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였다. 때문에 일은 더 성수가 났다.

(17) 저녁 분단은 모임에서 이날의 자기 위임을 성실하게 잘 수행한 문섭이를 높이 평가하였다. 춘삼이가 말하였다.

《문섭 동무가 조직이 준 일을 잘 했기 때문에 아이들은 하루'동안에 몰라보게 말끔해 졌습니다.

이와 함께 문섭 동무의 조직에 대한 생각도 더 깊어졌습니다. 이 마음을 더 크게 자래워야 합니다.》

(18) 한달이 지난 어느 날 문섭이는 처음으로 동구밖 보초를 서게 되였다. 그가 경각성을 높여 서 있노라니 풀섶에서 껑충 노루 한 마리가 뛰여 나왔다. 그놈은 한쪽 다리를 땅에 끌고 비칠거렸다. 이것을 본 문섭이는 굶주린 마을 사람들과 어린 아이들이 생각났다. 《저것을 붙잡았으면?》 이런 생각이 번개처럼 머리에 떠 올랐다.

(다음호에 계속)

아빠트 마을의 《꼬마 선동원》

—자강도 희천 중학교 인민반 4학년
오 명숙 동무의 이야기—

김 준 규

△ 티끌 모아 태산

오늘도 경실이네 집에서 산수 공부를 끝내고 돌아 온 명숙이는 빈 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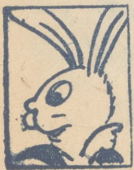
그는 이곳 저곳에 나딩굴며 우는 파지를 주어 모으는 거예요.

《착한 애야, 우릴 공장에 보내 주려니?》 파지들은 저마다 이렇게 물으며 반기는 것만 같았어요.

제지 공장 로동자 아저씨들의 믿어운 얼굴들도 떠 오르며 번갈아 안아 주는 것만 같았지요.

《제지 공장 로동자 아저씨들이 얼마나 좋아 하실가?》

저 혼자 속으로 생각하며 한장 두장 주어 담는 명숙이의 마음은 즐겁기만 했습니다.

지난 해 가을 명숙이네 분단 동무들은 선생님과 함께 희천 제지 협동 조합을 구경했습니다.

로동자 아저씨들이 목욕탕처럼 큰 가마에 파지를 가득 넣고 끓이더니 그것이 훌륭한 종이가 되여 나오는게 아니겠어요.

《애들아, 우리가 이때까지 버린 종이를 다 모아 가져 왔더면 훌륭한 새 종이가 되지 않았겠니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데…》 동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명숙이는 어쩐지 로동자 아저씨들 앞에 서 있기 조차 부끄러워 났습니다.

이때부터 명숙이는 코 푼 종이 하나 버리지 않고 다 모았지요.

그는 길을 가다가도 파지가 눈에 뜨이면 모두 주머니에 주어 넣었습니다.

명숙이는

많은 파지를 싣고 빨리 로동자 아저씨들을 찾아 가고 싶었습니다.

△ 오빠와의 약속

그러던 어느 날 명숙이는 민청원 언니들이 담배 갑을 모으는 것을 보았습니다. 《옳치 나도…》 이렇게 생각한 명숙이는 담배 갑도 새 것으로 모아 담배 공장에 보내면 종이를 절약할 뿐더러 로동자 아저씨들의 일'손도 덜어 드릴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좋은걸 생각 못했구나》 명숙이는 오빠에게 담배 갑을 만들어 드리고 오빠가 담배를 사올 때마다 갑을 모으자고 생각했지요.

어느 일요일 저녁이였습니다.

《오빠 내 담배갑 하나 드릴가요 그 대신!》하고 명숙이는 얼굴을 붉히며 제가 만든 담배갑을 오빠 앞에 내놓았습니다.

《허 이거 대단한 선물인데, 곧잘 만들었구나》

《오빤 더 좋은걸 만들어 주시구선 뭐》 명숙이는 오빠를 보며 방긋 웃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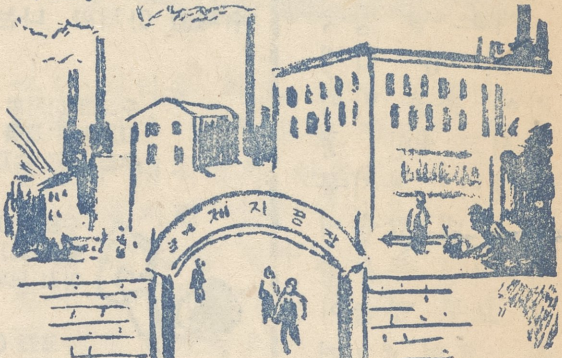
이날 오빠는 명숙이에게 파지함을 두개나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 대신 빈 담배갑은 꼭꼭 내께 줘야해요》 명숙이는 제가 만들어 드린 갑에 담배 가치를 꺼내 넣으면서 말했어요.

《제지 협동 조합에 갔다 와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분단 모임을 했다고 좋아하더니 종이를 모으느라구 그러는구나. 그래 그건 대단히 훌륭한 일이다. 지금 전체 인민들이 절약해서 증산하자고 나섰는데… 명숙이도 한몫 크게 하자는거구나!》

하면서 오빠는 명숙이의 기특한 마음을 칭찬했습니다. 오빠는 명숙이와 약속하고 꼭꼭 빈 담배갑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명숙이는 자기 마음을 잘 알아주는 오빠가 무척 고마웠습니다.

새 담배 갑을 차근차근 모으는 재미도 파지를 모으는 것에 못지 않았지요.

명숙이는 마을 할아버들에게까지 돌아 다니면서 이렇게 담배갑을 모았지요. 그는 한달에 꼭꼭 30통 이상씩 새 담배 갑을 수매소에 가져가서 담배 공장에 보내게 했습니다.

△ 분단의 어머니

명숙이는 자기 혼자만 하는데 끄치지 않았지요 그는 오빠가 만들어 준 휴지통 하나를 분단에 가져 갔습니다.

명숙이는 분단 위원입니다.

그는 늘 분단 동무들에게 로동당에서는 항상 절약하여 인민들이 먹고 입고 쓰는 여러 가지 물건을 많이 만들어 내자고 한다고 하면

서 로동자 아저씨들이 선반에서 깎기워 나온 쇠'밥을 모아 다시 용선로에 녹여 쓰며 담배 꽁초까지 모아 농약으로 보내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명숙이는 분단 동무들이 조그마한 쪼박 종이라도 버리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명숙이는 분단 위원회와 의논하고 반별로 파지를 줏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동무들은 어지러워진 종이는 주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명숙이는 긴 막대기에 못을 박아 가지고 4반 동무들이 파지를 줏는 데 갔습니다. 4반 동무들은 모두 명숙이를 보며 《그건 또 뭐니?》하고 물었지요.

《이것도 공장에 보내면 새 종이가 되지 않겠니?》하고 명숙이는 어지러워진 종이를 찍어 모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부터 4반 동무들도 모두 명숙이처럼 어지러워진 파지도 모조리 모았지요.

명숙이는 종이를 モ는 데만 끄치지 않았지요. 그는 학용품을 아껴 쓰는 데도 힘 쓰지요. 그는 쓰다 남은 연필 꽁다리 하나 철필 촉 하나 허수히 여기지 않는답니다.

어느 날 명숙이는 교실에서 다른 동무들이 버린 철필 촉을 스무개나 주어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버린 아이들의 이름을 수첩에 적었습니다.

갈아 쓰면 아직 더 오래 쓸 수 있는 것을 버리는 것이 명숙이에겐 얼마나 아까운지 몰랐습니다.

명숙이는 이날 밤 집에 돌아가 스무개를 다 새 것처럼 갈았지요.

다음 날 아침이였습니다.

《써 봐, 네가 어제 버렸던거야》

명숙이는 수첩에 적은 이름을 보며 철필 촉을 하나씩 나눠 줬지요.

《참 잘 써져, 넌 정말 좋은 생각을 잘 해내는구나.》

동무들은 모두 좋아 하면서 새 펜촉을 종이에 싸서 필갑에 넣으며 얼굴을 붉히겠지요.

이 분단 동무들이 펜촉 두 개를 번갈아 옥돌에 갈아 써서 오래도록 새 펜촉을 사지 않고 아껴 쓰는 버릇을 부치게 된 것도 바로 이렇게 시작된 것이였지요.

누구나 명숙이의 필갑을 열어 보면 그의 아름다운 마음에 감동됩니다.

연필 알이 부러질세라 언제나 연필 끝을 솜으로 싸 가지고 다니지 않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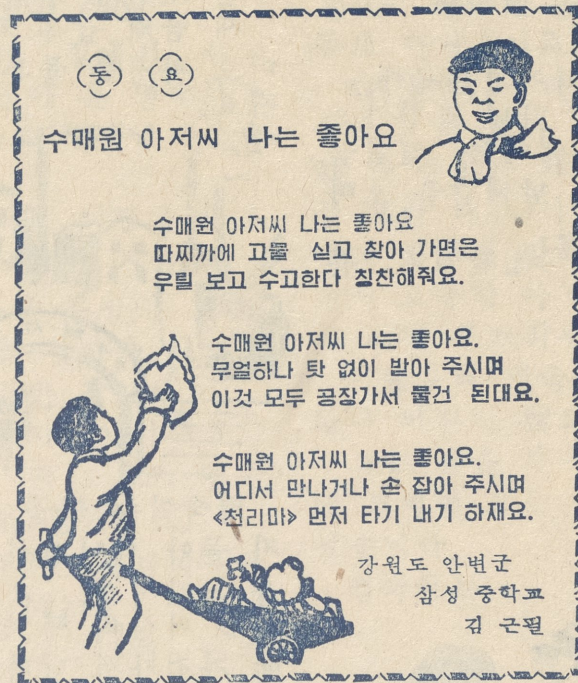
(동) (요)

수매원 아저씨 나는 좋아요

수매원 아저씨 나는 좋아요
따찌까에 고물 싣고 찾아 가면은
우릴 보고 수고한다 칭찬해줘요.

수매원 아저씨 나는 좋아요.
무얼하나 탓 없이 받아 주시며
이것 모두 공장가서 물건 된대요.

수매원 아저씨 나는 좋아요.
어디서 만나거나 손 잡아 주시며
《천리마》 먼저 타기 내기 하재요.

강원도 안변군
삼성 중학교
김 근필

이러면 혹 뛰는 일이 있어도 연필 알이 부러질 념려가 없으니까요.

분단 동무들은 모두 명숙이를 《분단의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모범을 따릅니다. 명숙이는 그 동안 한장 두장 아껴 모은 파지를 싣고 분단 동무들과 함께 제지 협동 조합에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명숙이가 모은 파지를 새 학습장으로 계산하면 400권도 넘는대요.

△ 아빠트 마을의 《꼬마 선동원》

희천 정밀 기계 공장 아빠트 마을 사람들은 언제나 전등을 꼭꼭 끄고 주무십니다.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명숙이의 숨은 노력도 크게 깃들어 있답니다.

1 년 동안 하루에 한 시간씩 절약한 전기면 약 2억 4천만 메터의 천을 짤 수 있다는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부터 명숙이는 아빠트 마을 집집마다 돌아 다니며 전등을 끄고 주무시도록 했답니다.

처음 얼마 동안 어떤 집에서는 자꾸만 잊어 버리고 그냥 켜고 주무셨지요.

한초 동안이라도 전기를 공연히 켜 없애는 것이 명숙이에게는 얼마나 아까운지 몰랐습니다.

《네 공부나 잘 해라》 한번은 어느 집에선가 명숙이에게 이렇게까지 말하더래요. 명숙이는 눈물이 글썽해서 더 말을 못하고 나왔지요. 집에 돌아 와 자리에 누었으나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동단원들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했을 가? 그들은 물러 서지 않았을거야》하고 생각한 명숙이는

다시 자리를 차고 일어 났답니다. 혁명 전통 연구 모임 때마다 아동단원인 명직이와 만옥이, 윤해, 부환 이들처럼 어떤 일이든지 꼭 해내는 김 일성 원수님의 참된 어린 전사로 자라겠다고 몇번이고 다짐한 명숙이니까요.

명숙이는 다시 그 집에 가만가만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전등을 끄고 주무시는게 아니겠어요. 《됐구나!》하고 명숙이는 남몰래 기뻐하며 돌아 섰지요.

명숙이의 이런 이야기는 어느 새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지금 이 마을 사람들은 명숙이를 《우리 아빠트의 꼬마 선동원》이라고 까지 부른 답니다.

이 말 속에는 소년단원의 의무를 적은 수첩이 닳아지도록 자꾸만 곱씹어 외우고 그대로 실천하는 명숙이의 참 되고 아름다운 마음이 담겨 있는거예요.

(작)(문) 통일의 꽃바구니를 싣고 달리리라

군사 분계선—이 패말 이 말은 삼천만 조선 사람들에게 참을 수 없는 불행을 가져다 주는 말이다.

철을 따라 새들은 지지 재재 노래 부르며 분계선을 넘어 날아 가고 날아 오건만 사람들은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없다.

15년 전에 헤여진 그리운 한 가족들끼리 만나기는 고사하고 편지 조차 전할 수 없으니 참으로 억울하고 분한 일이다.

하루 빨리 미제 놈들이 만들어 놓은 군사 분계선을 없에 치워야 한다.

입을 것 먹을 것 아무 근심 걱정 없는 공화국 북반부는 얼마나 좋은가……

우리의 로동자 아저씨들은 못 만들어 내는 기계가 없다.

자동차, 뜨락또르 3천톤 프레스, 8m 타닝반을 비롯한 여러가지 기계들을 척척 만들어 낸다.

오래지 않아 세계에서 제일 가는 비날론 공장이 일떠 서고 여기서는 해마다 폭포처럼 옷감이 쏟아지게 될 것이다.

황금의 쌀더미—380만 3천톤을 낸 협동 조합의 집집 마다엔 기쁨이 넘친다.

참으로 굉장한 일이다.

어찌 이뿐이랴!

어디가나 아담한 문화 주택이 자리 잡고 있으며 극장, 영화관, 병원, 탁아소가 있어 웃음과 노래는 흘러 넘친다.

학교는 또 얼마나 많은가!

동양에서 처음으로 중등 의무 교육제가 실시되고 이제 머지 않아 기술 의무 교육제가 실시된다.

해방 전에 하나도 없던 대학은 78개나 된다.

우리는 누구나 마음껏 배운다.

조선 로동당과 김 일성 원수님의 옳바른 령도로 정말 우리 조국은 지상 락원으로 변하였다.

남녁 땅의 정다운 동무들아!

너희들은 어찌하여 이 조국을 두고 이 추운 겨울에 쓰레기 통을 뒤지며 거리를 헤매야 하느냐!

왜 우리와 함께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떨어져 살아야 한단 말이냐!

어찌하여 한 나라 땅인데 려객 렬차가 씽씽 부산까지 달리지 못하겠니!

그것은 미제 놈과 장 면도당들 때문이다.

이 승냥이 같은 원쑤놈들아! 우리는 네놈들을 물러가게 하고야 말리라.

그래서 남조선에도 우리와 같은 행복한 세상을 꾸리리라.

그러기에 천리마를 탄 북반부의 근로자 아저씨들은 날에 날마다 더 많은 기계와 쌀 옷감을 만들어 내고 있다.

우리 소년단원들은 공부와 소년단 생활을 더 잘 하는 한편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을 힘껏 돕는 것이 헐벗고 굶주리는 남녁 땅의 동무들과 하루 빨리 만나는 길이다.

나는 최우등으로 졸업해서 려객 렬차 운전수가 되여 꽃바구니를 가득 싣고 서울 부산까지 달리리라.

그래서 공화국기 펄펄 날리며 만나려 오는 사람 만나려 가는 사람들을 싣고 씽씽 달리리라.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 말것이다.

미제 원쑤놈들아 당장 물러가라!

함남 영흥군 영흥 중학교
3분단 정 은섭

옛날 최부자 놈 부럽지 않아요

하학 종이 울리자 나는 두 주먹을 틀어쥐고 단숨에 집에 돌아 왔습니다.

우리 봉화 농업 협동 조합에서 분배 받는 날이였거든요.

《야 굉장하구나! 아버지 이거 다 우리 거예요?》

헐레벌떡 마당에 들어 선 나는 산'더미처럼 쌓인 벼 가마니를 보며 물었지요.

《그럼 알곡만 해도 4 톤이란다》 라고 대답하는 아버지의 얼굴에는 기쁨이 어려 있었어요.

이 날 저녁 우리 집 온 식구들은 흰 옥백미 밥에 갖가지 찬이 오른 밥상에 둘러 앉았어요.

그런데 어쩐지 아버지는 첫 술을 뜨시다 말고 생각에 잠기시는게 아니겠어요.

《또 뭘 생각해요 아버지.》 하고 물은 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았습니다.

《옛날 최 지주 놈도 이런 옥백미 밥은 못 먹었다》 하고 아버지는 그제야 밥을 뜨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당과 김 일성 원수님의 고마운 은덕에 목이 메여 아버지는 그리도 슬펐던 옛날을 더듬는 것이였습니다. 아버지는 옛날 우리 마을에서 제일 큰 부자였던 지주인 최 봉재란 놈네 집 머슴살이를 20년 넘어나 했답니다.

눈보라 윙윙 우는 겨울 날에도 아버지는 헌 베옷을 가리우고 거이 5리나 되는 눈'길을 헤치며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물을 길었고 장작을 해다 팼지요.

그리고 그 긴긴 여름 날에도 온종일 피땀 흘려 밭 김을 매고도 피삼죽 한 그릇으로 끼니를 에웠답니다.

《저 시계를 볼 때마다 그전 일이 생각나는구나》 식사를 끝내고 아버지는 벽에 걸린 시계를 보시면서 이렇게 새 이야기를 꺼내시였습니다. 아버지가 머슴살이를 할 때였습니다. 한번은 읍에 있는 보통 학교에 다니는 지주네 집 맏 아들이 시계 태엽을 주면서 뽐내기에

그때 아직 어린 마음이였던 아버지는 시계 태엽 돌리개라도 만져 보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들어 보다가 그만 너무 틀어 시계 태엽을 긁어 놓았답니다.

이 날 아버지는 지주놈 한테 반 주검이 되도록 매를 맞고 며칠 동안 일을 못하고 앓았다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약 한 첩도 쓰지 못했지요. 아버지가 여기까지 이야기하는데 진료소 의사 선생님이 찾아 오지 않았겠어요.

《좀 어때요》 하면서 [illegible] 약 가방을 메고 척 들어 서겠지요. 요새 며칠째 아버지는 감기를 만나 진료소에 다녀 오신 일이 있었지요.

한 번 더 오시라고한걸 아버지는 좀 나았다고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처럼 간호원 누나가 찾아까지 온 거예요.

《얼마나 좋은 세월이냐. 네 둘째 형도 살았더면 아마 지금쯤은 훌륭한 일'군이 됐을게다》 아버지는 간호원 누나가 주고 간 약을 잡수시며 또 한 토막 옛날의 슬픈 이야기를 꺼내시였습니다.

우리 둘째 형이 여덟 살 때랍니다.

모진 병이 들어 한의사네 집에 찾아 갔더니 한약 세첩은 써야 살 수 있다고 하더래요. 그런데 돈이 한 푼도 없었으니 어떠하겠어요.

그래 온 동네를 돌아 다니며 겨우 약 한첩 값을 얻어 가지고 의사네 집에 찾아 갔답니다. 약 두첩 값은 후에 가져다 주겠다고 온 종일 사정했지만 돈에 눈이 어두운 의사 놈은 끝내 듣지 않았답니다.

《일이 바쁜데 썩 물러가지 못해, 어디서 돈 없이 약주는 걸 봤어, 한 번 안 된다면 썩 물러 갈거지》 하고 이놈은 눈알을 부라리며 아버지를 내 쫓기까지 했다지 않아요.

그래 형님을 끝내 구하지 못했대요.

아버지의 이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막 치가 떨렸습니다.

이렇게 살아 온 우리 집이 오늘은 이처럼 행복해졌으니 당과 김 일성 원수님이 계시지 않고 또 오늘의 사회주의 제도가 아니였다면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손바닥만한 땅도 없어 그처럼 설음 겪던 우리는 해방 후 8,000평이나 되는 땅을 분배 받았답니다.

1948년도에는 청천강 물을 끌어 들여 이것이 모두 논으로 되였지요. 이 때 김 일성 원수님은 두 번이나 우리 마을을 다녀가셨지요.

옛날에는 우리 마을을 피야골이라고 불렀답니다. 피 밖엔 되지 않는 진펄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큰 부자였다는 최 부자 놈도 피'쌀에 입쌀을 드문드문 섞은 밥을 먹었답니다.

그렇던 우리 마을 사람들이 지금은 끼니마다 흰 옥백미 밥을 먹게 됐으니 최 부자놈 따위는 어림도 없는 부자가 됐지요. 1954년도에 협동 조합을 무을 때 우리는 선참으로 들었습니다.

우리 집 살림은 해마다 늘어 재작년에는 고래등 같은 기와집까지 지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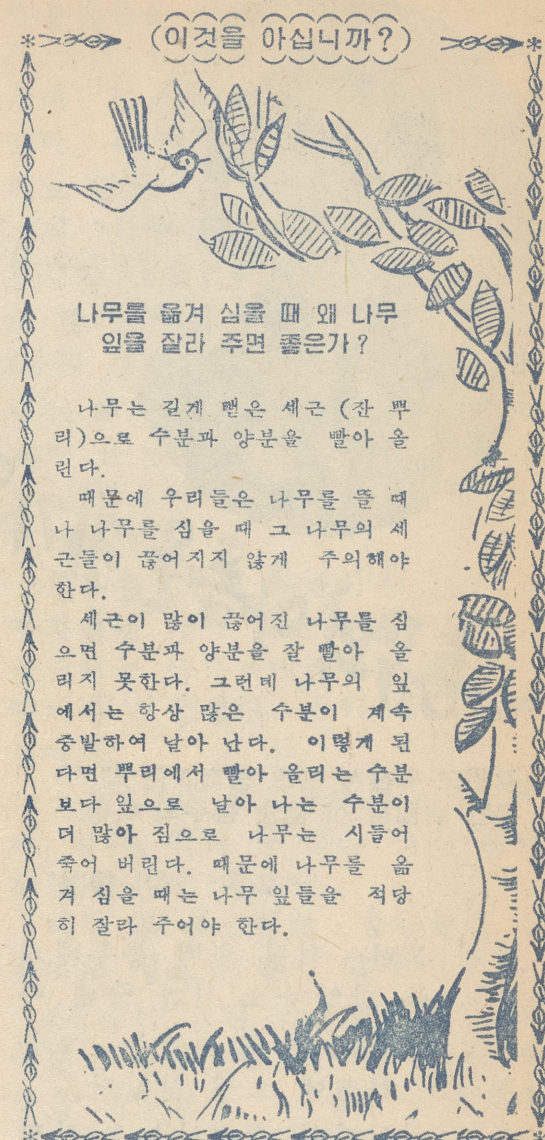
이불이 없어 그 추운 동지 섣달 긴긴 밤에도 헌 누데기로 배만 겨우 가리우고 새우 잠을 자군하던 우리 집에서 지금은 의롱 속에 꽃 무늬가 곱게 간 이불이 여섯 채나 있답니다.

지난 해에는 김 일성 원수님이 청산리에서 하신 말씀대로 농사를 잘 지어 우리 마을은 어느 집이나 할것 없이 모두 갑짝 부자가 됐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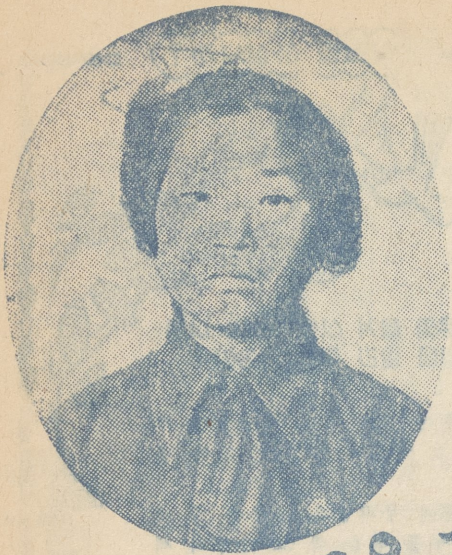
우리 집에서만 해도 80가마니의 알곡에 1,500원의 돈을 분배 받았으니까요.

《공부를 잘 해서 김 일성 원수님의 훌륭한 아들이 돼야 한다.》

아버지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지금 아버지의 슬픈 옛날과 오늘의 행복한 이야기가 함께 담긴 벽 시계를 매일 아침 보며 일분도 늦을세라 학교에 갑니다. 내가 학교에 갈 때면 협동 조합 유선 방송실에서는 올해에 알곡 100만 톤을 더 내기 위해 새벽부터 일'손을 다그치는 아버지 어머니, 형님 누나들에게 새 소식을 알리는 방송원 누나의 힘찬 목소리가 울려 나옵니다.

영사기까지 가지고 있는 우리 조합에서는 저녁이면 목욕과 리발을 깨끗이 하고 구락부에 모여 재미 있는 새 영화를 구경하지요.

올해 알곡 100만 톤을 더 내면 우리 조합 사람들의 살림은 얼마나 더 좋아지겠어요.

평남도 개천군 봉화 중학교
제 3학년 차 리섭

동무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강원도 원산시 근로 중학교단 제 12 분단 위원장 심 춘순 동무의 이야기

최 죽산

어제 분단 위원 순매 동무에게서 충고를 받았다고 시간 중에 마음대로 집으로 간 경춘이는 오늘 아침에도 학교에 오지 않았다.

분단 위원장인 춘순이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가 분단 지도원 선생님을 찾아가 이야기하였다.

분단 지도원 선생님은 한참 생각하시더니 《경춘이 아버지는 전쟁 시기 전사하시고 어머니도 없이 할머니와 같이 지내고 있어요. 경춘이를 걱정거리로만 생각지 말고 잘 도와 주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였다.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나오는 춘순이의 눈 앞에는 항상 침울한 얼굴을 하고 있는 경춘이의 얼굴이 떠 올랐다.

《분단 위원장이라는 내가 그런 사정도 모르고 못마땅하게만 생각했구나 이번 단에서 열리는 재간있는 솜씨 전람회에 낼 벼'짚 공작품 만들 위임을 받고도 이틀씩 결석하면서 하지 못한 것도 집사정 때문이였을 거야 그런 걸 순애 동무가 덮어 놓고 충고했으니 안타까워 집에 갔겠지… 그리고 전날 학부형회 때도 아무도 오지 않았다고 분단 동무들 마다 시끄러울 정도로 말했으니 그때도 얼마나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 했을가…》

집으로 돌아 온 춘순이는 항일 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기에서 《천보산의 용사》를 다시 읽으면서 《충진 형님처럼 동무를 도와야 해!》 하고 생각했다.

춘순이는 다음 날 분단 위원회를 열고 자기가 느낀 모든 이야기를 다하였다.

춘순이는 그날 저녁 동무들과 함께 경춘이네 집으로 찾아 갔다. 《늙은 할미가 시중을 미쳐 거들어 주지 못해 그러는지 요새는 공부도 잘하지 않고 짜증만…》 하고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아이들을 바라 보았다. 춘순이는 분단 위원장으로서 경춘이를 분단의 어머니 답게 돕지 못한 것이 부끄럽기만 했다.

분단에 돌아 온 춘순이는 경춘이네 집으로 갔다. 동무들은 석탄에 섞어 땔 흙을 파 오고 뜰 안을 쓸기도 하고 벽의 회'가루칠도 하면서 그를 도왔다. 그러나 경춘이는 별로 기뻐하는 내색도 없이 동무들 속에 끼여 수걱수걱 일만 할 따름이였다 《어떻게 하면 경춘이를 쾌활하게 만들 수 있을가》 이렇게 생각한 춘순이는 그 후에도 늘 경춘이네 집으로 놀러 갔다. 그러나 경춘이는 좀처럼 속을 주지 않았다. 그는 같이 숙제도 도와 주고 《만경대》, 《아동단》 이야기도 들려 주고 때로는 어머니에게서 들은 옛'이야기도 해주었다. 그런데 그는 늘 공부를 하자고 해도 자기의 학습장을 좀처럼 꺼내 놓으려 하지 않았다. 기미를 알아 차린 춘순이는 경춘이가 밖으로 나간 뒤에 그의 책가방 속의

학습장들을 펼쳐 보았다. 산수 력사, 국어 등 여러 학습장들은 군데군데 빈 백지가 여러문장씩 있었다. 《결석한 날 배운 것은 베끼지도 않았구나》 어떻게 해서든지 그의 학습을 도와 주어야겠다고 생각한 춘순이는 분단 위원 순애에게 찾아 가 이 사실을 이야기했다. 《우리 경춘이의 학습장을 정리해 주는 게 어때》 춘순이의 이야기를 듣고 난 순애는 난 아직 그런 것도 몰랐으니…》 하며 낯을 붉히는 것이였다.

공부를 마친 춘순이와 순애는 백화점에 가서 학습장을 샀다. 그들에게는 어머니에게서 용돈으로 탔다가 저축했던 돈이 좀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밤 늦도록까지 산수, 국어, 력사, 지리 등 배운 것을 죄다 새 학습장에 베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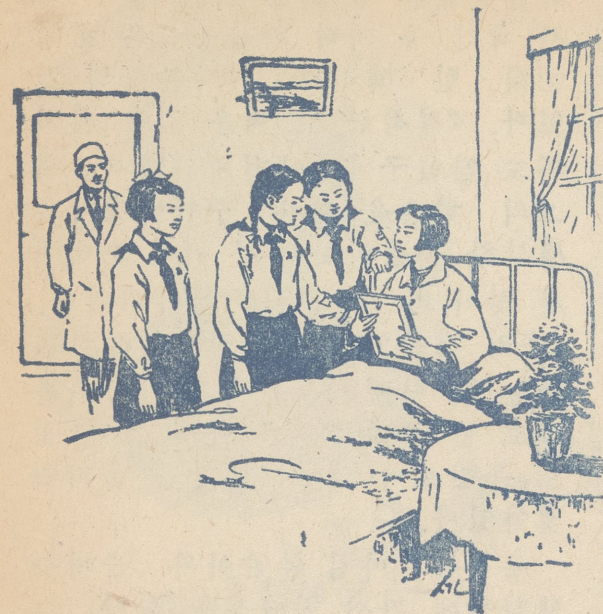
며칠 후 춘순이와 동무들은 경춘이네 집으로 찾아 갔다.

《경춘아 그런 학습장을 가지고 어떻게 공부하겠니》 하며 새 학습장을 내놓았다. 복순이와 순애는 그림 책 《고난의 40일》, 《한홉의 미시'가루》를 꺼내 놓았다. 말 없이 새 학습장을 받아 쥐고 뒤지던 경춘이의 고개는 점점 숙어지는 것이였다. 경춘이의 가슴에 이제야 따스한 분단 동무들의 사랑이 스며든 것이다.

그때로부터 얼마 후였다.

한번은 분단에서 화단 가꾸는 일을 마치고 돌아 오던 경춘이가 갑작스레 토하며 심한 열이 나기

《우리 모두 네 아버지 원쑤를 갚자.》

———o———

시작했다. 합께 집으로 가던 춘순이는 더럭 겁이 났다. 《어떻게 하면 좋을가, 집에 뛰여가 알릴가 그렇지 않으면…》 여기까지 생각한 그는 《당을 따르는 아동 단원들》에서 손 명직이가 어린 만금이를 업고 고난과 싸워가며 내두산으로 찾아가던 모습을 눈 앞에 그려 보았다. 춘순이는 경춘이를 업고 병원으로 달렸다. 몇 시간 후 경춘이가 앓는다는 소식을 듣고 할머니와 지도원 선생님이 달려 왔다. 의사 선생님과 간호원 언니는 주사도 놓으며 약도 먹이였다.

다음 날 춘순이와 동무들은 곧바로 병원으로 갔다. 경춘이는 깊은 잠이 들고 있었다. 춘순이는 경춘이의 머리 맡에서 자그마한 학습장과 연필을 보았다. 그것은 할머니가 가져다 준 경춘이의 일기 책이였다.

《그렇게도 도와 주려는 춘순이와 동무들을 밉다고 하여 말도 하지 않았구나!》 여기까지 읽는 춘순의 가슴은 기쁨으로 설레였다. 그는 일기의 첫 장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다 《…나는 아버지 사진이라도 한번 봤으면 원이 없겠다. 전선에서 미국놈들과 용감히 싸우신 우리 아버지!…》 춘순이 눈은 이 대목에서 멎었다. 《옳아》 춘순이는 동무들과 의논하고 경춘이 할머니를 찾아 갔다. 춘순이의 이야기를 들은 할머니는 감탄하시며 옥평에 있는 친척 집에 그 사진이 있을상 싶다고 하였다. 춘순이와 복순이, 순애는 그 길로 옥평으로 떠났다. 길은 멀어도 아이들은 피곤한 줄 몰랐다 그들은 늦어서야 병원에 도착하였다. 복순이는 사과도 사가지고 왔다. 《경춘아 너의 아버지야》. 춘순이는 경춘의 아버지 사진을 그의 머리'맡에 놓았다 《아버지!?》 경춘이는 목이 꽉 메이여 더 말을 잇지 못하였다. 경춘의 두 눈에 이슬이 맺히더니 그만 사진을 받아 든채 흐느끼기 시작했다. 순간 동무들의 두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다음 순간 춘순이는 고개를 들며 춘순이의 손목을 꽉 잡았다.

《우리 모두 네 아버지 원쑤를 갚자.》

《고마워!》

서로 손을 부둥켜 쥐는 그들의 두 눈에서는 눈물이 아니라 금시에 불빛이 빛나는 것이였다.

(이것을 아십니까?)

어떤 땅에 어떤 나무를 심을 것인가

나무가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는 나무에 따라 그 특성에 맞는 땅에 심어야 합니다.

1, **뽀뿌라**— 보통 내'가나 부락 주변에 심는다. 동서 해안에서는 땅이 비교적 걸고 습한 곳에 심는 것이 좋으며 사토(모래 섞인 땅)에는 밭 흙을 옮겨다 심어야 한다.

2, **황철 나무**— 내'가나 산골짜기 산 기슭 등 비교적 습기 있는 땅에 심는다.

3, **닥나무**— 재'뚝, 산 기슭 또는 제방 밑에 심는 것이 좋다. 돌 없고 건 땅에 심어야 한다.

4, **잣나무**— 산골짜기, 산허리, 산마루의 습하고 건 땅에 나무가 드물거나 여러가지 나무가 자라는 곳에 심어야 한다.

5, **밤나무, 배나무**— 강 기슭, 산 기슭, 골짜기에 수분이 적당하고 진 땅에 심는 것이 좋다.

7; **호도나무**— 재'뚝, 부락 주변 등 땅 깊이 흙이 많고 습기가 적당한 곳에 심는 것이 좋다.

오리제균으로 사철 토끼사료를 해결하는 방법

오리제균으로 가축들의 사료를 해결하게 된 것은 우리 나라 농업 과학에서 이룩한 커다란 성과의 하나이다.

오리제균을 리용하면 독있는 풀을 내놓고는 어떤 풀이거나 사료로 리용할 수 있다.

오리제균이란 간장, 된장을 만들 때 메주에 있는 황곡균(세균의 이름)을 말한다.

오리제균으로 사료를 만들자면 먼저 그 균을 기르는 곡자 (누룩)을 만들어야 한다.

1. 곡자 (누룩) 만드는 방법

곡자를 만들자면 오리제균 (수의 축산 병원에서 가져와야 한다)과 곡자함 (너비 30cm, 길이 50cm 깊이 60cm)과 곡자함을 놓을 방이 있어야 한다.

곡자를 만들기 위하여 먼저 옥수수'대 옥수수'속, 콩 깍지, 벼'겨, 마른 풀, 감자 록말을 만들고 난 찌끼등을 1~2미리메터 정도로 빻은 다음 빻은 원료에 55~60%의 물을 붓고 한 시간 이상 증기로 쪄 소독해야 한다. 이렇게 소독한 원료를 깨끗한 곳에 가져다가 주걱으로 저으면서 35~40도 정도되게 식혀야 한다. 식힌 원료 속에 오리제균을 곡자로 만들 량의 0,1~0,3% 정도 놓고 잘 뒤섞어야 한다. 오리제균을 놓은 원료는 곡자함에 옮겨 놓은 다음 곡자실에 놓아서 기른다. (이때 곡자실 안에 있는 곡자함과 모든 것을 소독하는 것이 좋다)

곡자실 온도는 27~30도가 좋으며 습도는 85~90%를 꼭 보장해야 한다. 이와 같이 하여 하루에 2~3회씩 저어 주면서 2~3일 간 놓아 두면 된다.

곰팡이가 활짝 돋은 다음에 그를 얇게 펴서 공기를 잘 쏘여 3~4일간 두어 두면 누런 갈색으로 변한다. 이렇게 되면 곡자는 다 된 것이다.

이렇게 만든 곡자는 잘 말려 깨끗하고 마른 곳에 간직해 두고 쓸 수 있다.

2, 곡자를 사료에 섞는 방법

말린 풀과 옥수수 짚, 콩'짚, 각종 북데기와 각종 나무'잎, 옥수수 뿌리, 벼 뿌리등 띄울 사료는 먼저 보드랍게 빻아야 한다. 빻은 사료는 미지근한 물로 좀 추기여 두었다가 사료를 만들 때 사료의 종류에 따라 곡자의 량을 조절해 놓는다. (보통 옥수수'짚으로 사료를 만들 때는 만들 사료의 1~3% 정도의 곡자를 놓는다). 사료 만드는 통에 놓은 다음에는 그 우에 25~30도 정도의 물을 약간 부어 놓는다. (가축들이 먹는 정도를 보아) 다음은 이것을 20도 정도의 온도에다 2~3일간 (여름에는 1~2일간) 두어 두면서 하루에 3~5회씩 저어 주면 황갈색을 내면서 향기 있는 냄새를 풍긴다. 이것을 가축들에게 먹인다.

3, 먹이는 방법

띄운 사료를 다른 사료들과 섞어 먹일 수도 있고 그것만 먹일 수도 있다. 처음 띄운 사료는 토끼와 닭 오리 등에는 하루에 5~6회 양, 염소는 2~3회씩 먹이는 것이 좋다.

훌륭한 벽보를 만들자면…

김 봉선

동무들이 발간하는 벽보는 소년단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의 하나이다.

그것은 벽보가 그 때마다 당과 정부에서 내놓는 일이라던가 민청에서 내놓는 일들을 알려 주며 소년단 단체와 소년단원들이 하여야 할 일들을 가르쳐 주고 소년단 생활과 공부를 잘하도록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해답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벽보는 당과 김 일성 원수님의 가르침 따라 항상 소년단 생활에서 앞장 서 나가는 모범적인 동무들의 경험을 널리 알려도 주고 동무들이 시급히 고쳐야 할 점에 대해서도 알려 준다.

때문에 벽보는 동무들의 생활과 떼여 놓고 생각할 수 없다.

이렇게 동무들을 도와 주는 벽보는 여러 가지가 있다.

학교 내 전체 분단에 도움을 주는 단 벽보와 분단 내의 생활과 반 생활 특히 매개 소년단원 동무들의 실 생활에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고 있는 분단 벽보가 있으며 때때로 나서는 당 정책과 소년단원들의 생활을 재빨리 알려 주는 속보도 있다. 그리고 조선 로동당 력사 연구 크루쇼크를 비롯하여 공작, 기술, 문학, 예술 크루쇼크들을 중심으로 발간하는 크루쇼크 벽보들도 있다. 이 벽보들은 모두가 자기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나는 여러 가지 벽보들 중에서 분단 벽보에 대하여 이야기하려 한다. 얼마 전에 평양 교구 중 학교 단 제 5 분단 벽보 편집 위원 동무들을 만나 보았다.

5 분단 벽보 편집 위원 동무들은 한달 동안이나 발간할 벽보 계획을 짜고 벽보를 어떻게 발간할 것인가를 의논하고 자세한 분공을 하였다. 이 분공에서는 전체 소년단원들이 다 움직일 수 있도록 하였다.

지난 날처럼 글이나 잘 짓고 그림이나 잘 그리는 몇몇 동무에게만 맡기던 낡은 방법을 버리고 실지 소년단 생활에서 모범을 보인 동무가 직접 자기 경험을 쓰도록 한다든가 또는 벽보를 발간하는 과정을 통하여 일부 뒤 떨어진 동무들을 교양하는 데로 분공을 세심하게 하였다. 례를 들면 동무들을 비웃으며 말썽을 좀 부리는 한 동무에게는 회상기에 있는 《공청원 리 순희》를 읽게 하고 그 감상을 벽보에 써 내도록 위임을 줌으로써 옳지 못한 자기의 생각과 조직에 성실치 못한 행동에 대해서 많은 반성을 하고 옳게 나가도록 도움을 주었다.

또는 성격이 걸적걸적해서 이것 저것 하고 싶어하는가 하면 다른 학교 소년단원들과도 많이 알고 있는 로 응실 동무에게는 이웃 학교와 분단들에서 요즘 《모범 분단》 칭호 쟁취 운동에서 거두고 있는 모범적인 경험을 제때에 알아다 동무들에게 알려 주도록 하였다. 이렇게 분단원들의 흥미와 재능에 알맞는 분공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벽보 편집 위원들은 분단원들 속에서 자신들이 모범을 보이면서 가르쳐 주는 한편 분단에서 나타나는 좋은 점들은 찾아 내서 소개하기에 힘썼다. 그리하여 그들은 여러 반과 가정까지 방문하면서 공부 잘하고 일 잘하는 훌륭한 동무들을 찾아 내여 소개하기도 하고 또 분단원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제때에 알아 벽보에서 해결해 주기도 하였다.

이렇게 발간된 벽보 8호 《샘 솟는 우리 힘》은 전체 분단원들을 100만 톤의 알곡 증산에 나선 아버지 어머니들을 돕는 일에로 불러 일으켰다.

특히 그 중에서도 《교마 장수는 늘어만 간다》, 《첫 기쁨》, 《누가 했을가》, 《알아 마치기》 등 작은 제목들은 소년단원들의 시선을 끌었다. 나도 작은 제목에 끌려 모든 일에서 《교마 장수》를 많이 냈는지 알고 싶어 옆에 그려져 있는 그림과 내용을 보았다. 거기에는 100만 톤의 알곡 증산에 나선 아버지 어머니들을 돕기 위해 간선동 56반과 교구동 21반에 나가 랭상모의 중요성을 선전하고 랭상모 문짝에 바를 잡지, 신문, 파지 등을 모아 산데미 같이 밀고 오는 한 중녀, 리 윤희 동무들의 모습을 그린 것이였다. 이것을 보고 있던 1반 반장 양 화자 동무는 지지 않겠다는 듯이《우리도 잘하자》라고 큰 소리로 웨쳤다.

옆에 섰던 6반 반장 진 문순 동무는 용기를 내며《그래 누가 나라에 더 많은 리익을 주나 보자》하면서 서로 경쟁을 걸자고 나섰다. 그러면 1반 반장과 6반 반장들이 어떻게 이렇게 흥분되였겠는가? 그것은 바로 며칠 전에 분단 총회에서 당 중앙 위원회 12월 확대 전원 회의 결정을 받들고 《교마 7개년 계획》 활동을 잘해 나가자고 토의가 있은 이후 누가 먼저 어떻게 사업할 것인가를 반원들이 서로 의논하고 있는 막 그때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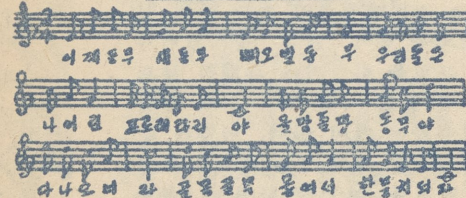
이들은 벽보가 항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앞장에서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또 다른 글에는 동무들의 곤난을 알고 도와 준 박 영희 동무의 아름다운 이야기라든가 새 소식들이 많이 씌여 있었다. 이 벽보를 단숨에 다 보게된 것은 내용이 짧고 선명한 그림들이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데도 있었지만 동무들의 생활을 실감있게 그대로 담은 데 있다고 생각한다.

벽보에는 신문에 나온 것이나 남의 것을 소개하는 것보다 자기 분단에서 나타나는 모범적인 사실들이 실려야 실감 있게 보며 다음 벽보에는 또 어떤 것이 나오겠는가고 모두가 기다리게 된다. 그러므로 벽보에는 소년단원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가를 알려 주며 때를 놓치지 말고 앞서 나가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벽보는 소년단원들이 보고 빨리 알 수 있도록 글이 짧고 흥미있어야 하며 그림을 바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에 맞는 사진 또는 화보 등을 잘 리용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발간된 벽보를 부쳐 두는 것으로 끄쳐서는 안된다. 교구 중 학교 단 5분단 동무들이 하는 것처럼 벽보 주필을 비롯한 편집 위원들이 벽보 내용을 소년단원들에게 알려도 주고 벽보에 실린 모범적인 동무들과 경험 교환회도 하고 분단 총회와 반 모임 등에서 벽보 내용을 가지고 널리 토의 하도록 하며 많은 동무들의 의견을 들어 다음 호는 더 잘 발간해야 한다. 그리고 발간된 벽보는 1년 간 사업을 총화할 때까지 분단에 잘 보관해 두고 교양 자료로 리용하며 한해 일을 마감 짓는 데도 리용할 수 있도록 간직해 두어야 한다.

(3)

전 호에서 우리는 악보 그리는 법과 음들의 높이와 명칭 등을 공부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번에는 음의 길이와 박자에 관하여 보기로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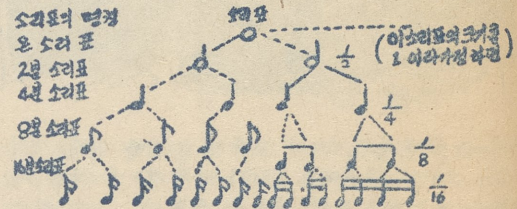
삐오넬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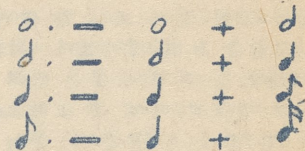
어깨동무 새동무 삐오넬 동 무 우리들은
나어린 프로레타리 야 올망졸망 동무야
다나오너 라 골목골목 몰여서 한뭉치되자

위에 적은 노래는 우리들이 잘 아는 혁명가요 《삐오넬가》입니다. 그러면 전 호에서 공부한 음의 명칭들을 써서 노래를 불러봅시다. 우리는 여기서 어떤 음은 길고 어떤 음은 짧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가사 《동무 새…》의 매 음의 길이는 모두 같습니다. 그러나 《무》는 그 앞의 어느 음보다 깁니다. 그래서 이 음들의 길이를 비교해 볼 때 《무》의 길이가 그 앞의 음들의 길이의 2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사 《삐오넬 동》과 그 다음의 《무》와의 길이를 비교해 볼 때 《삐오넬 동》의 네개의 음의 길이와 《무》한 음의 길이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프로레타리야》에서 《프로》이 두 개의 음의 길이는 《레》한 음의 길이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와 같이 음의 길이는 소리표의 생김새로써 표시하며 생김새가 서로 다른 소리표들은 그 길이의 크기에서 서로 일정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소리표들의 길이를 서로 대비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리표의 명칭
온 소리표
2분 소리표
4분 소리표
8분 소리표
16분 소리표

온소리표 (이소리표의 크기를 1 이라 가정하면) $\frac{1}{2}$ $\frac{1}{4}$ $\frac{1}{8}$ $\frac{1}{16}$

또한 《삐오넬가》의 가사 《어깨 동무》의 《어》에는 소리표 옆에 점이 있습니다. 이런 소리표를 점 소리표라고 부르며 그것은 점이 없는 소리표에 그 소리표의 절반만한 길이를 더 길게 하라는 표식 입니다.

𝅝. = 𝅝 + 𝅗𝅥
𝅗𝅥. = 𝅗𝅥 + ♩
♩. = ♩ + ♪
♪. = ♪ + 𝅘𝅥𝅯

그런데 위에 적은 《삐오넬가》는 우리가 이미 아는 노래이기 때문에 위에 적은 악보만 보고도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삐오넬가》를 모른다고 친다면 위에 적은 악보만 보고는 그의 길이를 알아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것은 위에 적은 악보에서는 단지 음들의 길이의 호상 관계만 나타나 있지 그 모든 음들을 얼마만한 길이를 기준으로 하라는 표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음의 표준 길이를 표시하기 위하여서는 박자표라는 표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박자표란 무엇인가?

음악에는 어떤 노래에서든지 우리들의 심장에서 고동치는 맥박과 같이 노래 속에서 규칙적으로 흐르는 맥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삐오넬가》를 걸어 가면서 부른다면 이 노래에 발 걸음을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노래에 맞는 이 발 걸음이 노래 속에서 흐르고 있는 맥박과 맞아 떨어지는 것이며 이 맥박의 흐름을 가리켜서 박절이라고 하며 그 맥박의 하나 하나를 가리켜서 박이라고 부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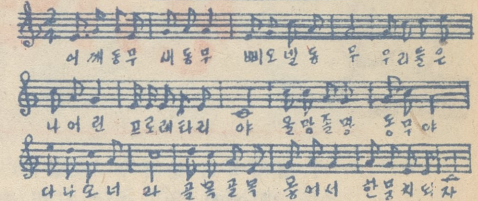
그런데 우리가 이 노래를 걸으면서 부를 때에는 항상 왼 발을 내 디딜 때 노래에 힘을 주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박절에는 강한 박과 약한 박이 있는데 그 강한 박이 어떤 노래에서는 두 박 만에 한 번 나타나기도 하며 또 어떤 노래에서는 세 박 만에 그리고 그 이상의 수의 박 만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강한 박이 두박 만에 한번 나타나는 노래를 2 박자라고 하며 세 박 또는 네 박 만에 나타나는 노래를 3 박자 또는 4 박자라고 각각 부릅니다.

그래서 이 박절에서의 강한 박과 약한 박을 악보표에서 나타내기 위하여 강한 박 앞에 마디선이라는 선을 세로 긋고 그 마디선과 마디선 사이를 소절이라고 부르며 강한 박을 소절의 강박이라고 하며 약한 박을 약박이라고 합니다.

위에서 말한 박자표라는 것은 한 개의 소절 안에 몇 개의 박이 있으며 즉 몇 박자의 노래이며 그 한 박의 길이는 무슨 소리표로써 표시하는가 하는 것을 분수로서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분수의 분자는 한 소절 안에 있는 박의 수를 표시하며 분모는 한 개 박의 길이를 표시하는 소리표의 명칭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삐오넬가》의 소절과 박자표를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삐오넬 가

어깨동무 새동무 삐오넬 동 무 우리들은
나어린 프로레타리 야 올망졸망 동무야
다나오너 라 골목골목 몰여서 한뭉치되자

즉 이 노래는 한 소절 안에 두 개의 박이 있으며(2 박자), 그 한 박의 길이는 4분 소리표로써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박자를 가리켜서 4분지 2박자라고 합니다.

노래가 중단되고 쉴 때에는 쉼표를 사용합니다. 쉼표의 길이를 소리표와 대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온 쉼표	𝄻	=	𝅝
2분 쉼표	𝄼	=	𝅗𝅥
4분 쉼표	𝄽	=	♩
8분 쉼표	𝄾	=	♪
16분 쉼표	𝄿	=	𝅘𝅥𝅯

(다음호 계속)

위생 근위 대원들에게

봄철의 위생

3, 4월은 위생 월간입니다.

그러면 3,4월 위생 월간에 우리 소년단원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 개인 위생을 잘 지키는 일입니다. 매 주에 한 번씩 꼭 목욕을 하여야 하며 속내의도 한 번씩 갈아 입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할 일은 무서운 전염병을 퍼뜨리는 파리를 없애야 합니다. 파리를 없애기 위하여서는 파리가 되는 번데기와 구더기를 잡아야 합니다. 땅 속에서 겨울을 난 번데기와 구더기들은 봄이 되면 껍질을 벗고 파리가 되여 날아 나옵니다. 그러므로 땅이 녹기 전에 구더기와 번데기 잡이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번데기와 구더기는 어떤 곳에 있겠습니까? 위생적으로 잘 만들어 지지 않은 변소, 오물장 근처, 퇴비장, 축사, 하수도 주위의 양지 바르고 어지러운 땅 속에 있습니다. 대체로 번데기는 얕은 데 있고 구더기는 좀 더 깊은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호미로 땅을 얇게 긁으면서 번데기를 잡으며 구더기는 삽으로 깊이 파고 잡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모기를 잡아야 합니다. 모기는 집 천장, 처마밑, 지하실 등에서 겨울을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에 숨어 있는 모기를 잡으면서 학교와 집 주위에 모기가 알을 놓는 물 구덩이를 없애야 합니다. 특히 봄 눈썩이물이 고일 수 있는 곳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또 봄철부터 12장충증을 미리 예방해야 합니다. 12장충은 사람의 입으로 뿐만 아니라 피부를 뚫고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썩이지 않은 인분뇨를 비료로 준 실습지를 가꿀 때는 신을 벗고 일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3, 4월 위생 월간에 쥐 잡이도 해야 합니다.

위생 근위대의 역할을 더욱 높여 학교와 마을 자기 집을 아름답고 깨끗이 꾸리는 일에 힘차게 나섭시다

인형 영화 소개

신기한 복숭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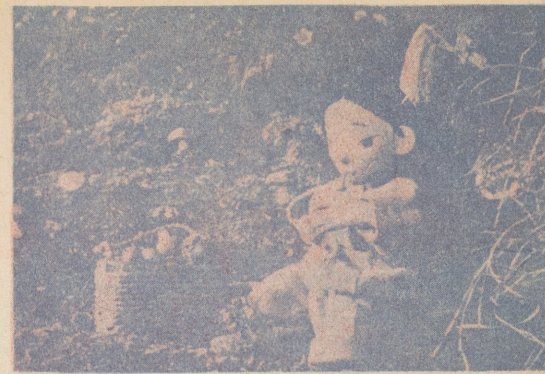
이 영화에는 순희와 수남 그리고 뚱뚱보와 키다리 지주놈이 나옵니다.
이 영화에서 우리는 순희와 수남이처럼 일에 부지런 하고 남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착한 사람들에게는 행복이 있고 일하지 않고 남의 등만 처먹는 악한 지주 같은 놈들은 이 세상에서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 옛날에도 아주 먼 옛날 이야기이지요.
어느 작으마한 마을에 착하고 부지런한 수남이와 순희 남매가 살고 있었지요.
때는 가을이라 오늘도 이들 오누이는 이른 새벽부터 들에 나가 벼 가을을 했지요.

(2) 마을 사람들이 괴땀 흘려 일할 때면 뚱뚱보와 키다리 지주놈들은 이처럼 날마다 놀이터에서 술잔치로 세월을 보냈지요.

(3) 뚱뚱보와 키다리 지주놈은 수남이네 남매가 추수한 것을 알고 빚진 낟알을 내라고 호통을 치며 달려 들었지요.

(4) 수남이와 순희는 시재 먹을 것이라도 남겨 달라고 사정했지만 악착한 뚱뚱보와 키다리 지주놈은 종자 낟알까지 깡그리 빼앗아 갔습니다.

(5) 수남이와 순희는 살아 나갈 앞길이 캄캄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수남이 남매를 불쌍히 여겨 친 자식처럼 도와 주었지요.
파랑새도 이들을 가엾게 여겼지요.

(6)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야 한다고 다짐한 그들은 날마다 산에 가서 버섯과 도토리를 따다가 근근히 목숨을 이어 나갔지요.

(7) 그러던 어느 날이였지요. 도토리를 줏고 있는 순희의 눈 앞에는 그전 날 그 파랑새 한 마리가 날아 왔지요. 파랑새는 어서 따라 오란 듯이 앞서 가며 노래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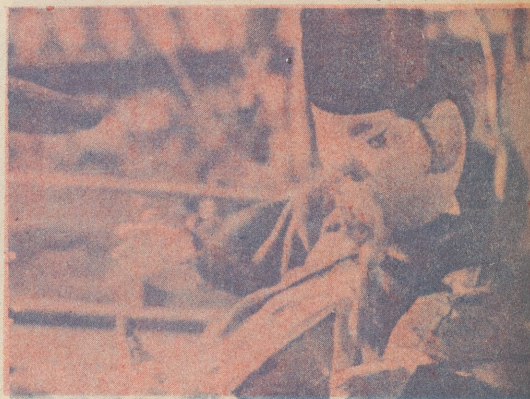
(8) 파랑새를 따라 순희는 저도 모르게 깊은 산 속으로 들어 갔지요.
자방을 살피던 순희는 신기한 복숭아 나무를 보고 그만 깜짝 놀랐답니다.

(9) 순희는 오빠를 불러다가 복숭아를 따 주었지요. 글쎄 이게 웬 일이겠어요. 복숭아를 하나씩 따 먹으니 여윈 얼굴은 갑짜기 통통하게 살이 지고 누더기 옷이 어느 새 훌륭한 명주 옷으로 변하질 않겠어요.

(10) 어디서 이런 힘이 생겼는지 수남이는 큰 바위'돌도 한 손으로 척척 들게 되였지요. 《오빠 우리 이 복숭아를 따다 부지런한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가》, 《응 참 좋은 생각이야》 그들은 복숭아를 따 가지고 마을로 내려왔지요.

(11) 마을 사람들은 수남이네 남매의 아름다운 행동에 모두 감탄했지요. 복숭아를 먹은 젊은이들은 더욱 힘이 세지고 늙은이들은 갑짜기 수염도 없어지고 주름'살도 없어져 일에 성수가 났지요.

(12) 공짜라면 혀가 닿지 않아 못 먹는 이 뚱뚱보와 키다리 지주놈은 《옳지 그놈의 복숭아를 모조리 따 와야지!》 누가 따라 올가 두리번 거리며 그 길로 산으로 들어 갑니다.

(13) 복숭아 나무를 만나자 이놈들은 《허허허… 신기한 복숭아야, 신기한 떡이야》 하며 큰 횡재가 생겼다고 두 팔을 벌리고 덤벼들었지요.

(14) 뚱뚱보와 키다리는 불이 메게 복숭아를 따 쳐넣었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가요. 갑짜기 수염도 털렁털렁 떨어지고 몸도 더 뚱뚱해지질 않겠어요. 지주놈은 신이 나서 더 쳐 넣었지요.

(15) 《이젠 그럴 것 없이 이 나무를 떠다 뜰안에 심어 두고 우리들 끼리만 먹는 게 어때》 지주놈들이 나무 뿌리를 팔려고 할 때이지요. 쩡! 땅이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에그마나! 소리 한 번 지를사이도 없이 땅은 욕심쟁이를 삼켜버리고 말았지요.

(16) 악독한 지주놈이 없어진 마을에는 풍년맞이 농악소리가 흥겹게 울려 퍼집니다.

이때부터 수남이와 순희는 더 부지런히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지요.

우리 마을 뜨락또르

새벽부터 엔징소리
　　　강산 울리며
분주히 오고 가는
　　　《천리마》 호 뜨락또르

백만 톤의 알곡을
　　　더 내기 위해
거름'더미 가득 싣고
　　　들판으로 달리누나

산같은 거름'더미
　　　뜰악마다 쌓아 놓고
논과 밭에 실어내는
　　　우리 마을 뜨락또르

다가 오는 조국 통일
　　　앞당기기 위해
쉴새 없이 달리누나
　　　우리 마을 뜨락또르

거름'더미 쌀'더미
　　　가득 가득 싣고서

황남도 옹진군 립석 중학교
박 창룡

무얼 실었나

마을 앞 철'길을
부지런히 오가는 기차야
무얼 싣고 그리 바삐 달리느냐?

뜨락또르 실었구나
많이도 실었구나
또 무얼 실었기에
그리 좋아 야단이냐?

그렇구나 얘들아
자동차도 실었구나
련결차도 실었구나
아니 아니 그 뿐이 아니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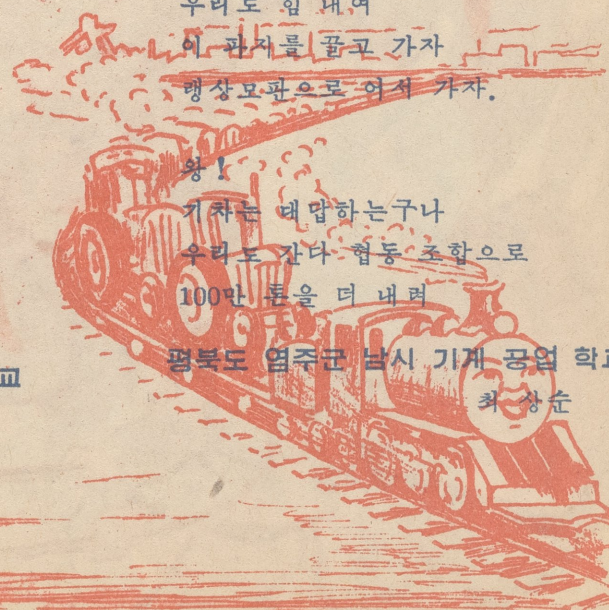
파종기도 제초기도
하나 가득 실었구나
로동자 아저씨들의 마음
하나 가득 실었구나

얘들아 어서 가자
우리도 힘 내여
이 파자를 끌고 가자
랭상모판으로 어서 가자.

왕!
기차는 대답하는구나
우리도 간다 협동 조합으로
100만 톤을 더 내려

평북도 염주군 남시 기계 공업 학교
최 상순

우리 분단 나아간다

(동시)

꼬마 돌격대 나아간다
잠든 버들개지 어서 깨라고
뛰떼뛰떼 라팔 불며 나아간다
잠들었던 구석 땅도 다 깨워 일으키며
모은 거름 가득 싣고 우리 분단 나아간다

새 봄을 아름아름 앞당기며
뛰떼뛰떼 라팔 불며 나아간다
우리 짜낸 송탄유와 모은 종이 싣고서
아빠, 엄마 일'손 바쁜
랭상 모판 어서 가자

소년 선전 예술대 나아간다
노래하며 춤을 추며
둥둥둥 북을 울리며 나아간다
금물'결 출렁일 500만 톤 협동벌로
붉은 넥타이 펄펄펄 날리며

꼬마 기사들 나아간다
새로 얻은 땅 우에 기'발을 휘날리며
둥둥둥 북을 울리며 나아간다
거름으로 살찌우고 새 농사법 잘 써서
우리 힘도 쌓고 쌓자 500만 톤 쌀더미에

함남도 광천군 두연 중학교
렴 창복

뜨락또르의 앞 바퀴는 왜 뒤'바퀴보다 작은가?

용철이는 100 만톤 증산에 일떠선 어머니 아버지들을 도우려고 조합에 갔다가 발을 갈고 있는 뜨락또르를 유심이 보게 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뜨락또르의 앞바퀴가 뒤바퀴보다 작은 것을 발견하고 뜨락또르 운전수 아저씨에게 뛰여가 물어 보았습니다. 같이 따라 갔던 정남이가 입 빠르게 《빨리 달리라고 앞 바퀴가 작지 뭐》 하고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껄껄 웃으시며 몇 가지로 이야기 해 주셨습니다.

동무들은 뜨락또르의 앞바퀴가 왜 작은지 아십니까? 세가지 이상 알아서 답을 써 보내십시요.

1호 현상 문제 해답

(1) 강계 뜨락또르 공장에서 작년 8월에 만들어 낸 소형 뜨락또르인데 아무리 좁은 땅에서도 마음대로 움직이면서 논발가리, 씨뿌리기, 김 매기 써레질을 비롯한 모든 일을 척척 해 냅니다.

(2) 기양 뜨락또르 공장에서 작년 10월에 만들어 낸 뜨락또르 불도젤인데 토지를 개간하며 포전을 정리하며 관개 하천 공사를 하는데 리용 됩니다.

(3) 기양 뜨락또르 공장에서 작년 10월에 만들어 낸 뜨락또르 기중기인데 이 기계로는 무거운 짐을 싣고 내리는 일을 헐하게 합니다. 1.2 톤이나 되는 무거운 짐을 3m의 높이까지 들어 올릴 수 있으니까요.

1월 호 현상 문제 당선자

자강도 동신군 원흥 중학교 인민반 2학년 최 정흡
함남 정평군 동호 중학교 허 금화
평양시 교구 중학교 주 영남
평북 룡천군 서석 중학교 김 택수
평북 벽동군 벽동 중학교 조 춘남
평남 온천군 서화 중학교 김 경자
평남 덕천군 송정 중학교 길 상두
함북 길주군 류천 중학교 길 우천
함북 연사군 대산 중학교 김 창원

독자들에게 알리는 말씀

편집부는 오늘 로동당과 김 일성 원수님의 어린 붉은 전사답게 공산주의적으로 배우며 일하며 생활하고 있는 우리 나라 소년단원들 속에서 꽃피고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널리 소개하려 합니다. 독자여러 동무들은 날에 날마다 학습과 소년단 생활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 천리마 시대의 소년단원들의 기특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널리 써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모범 분단》 칭호 쟁취 운동에 참가하고 있는 이야기도 좋고 동무를 사랑하고 도우며 로동을 사랑하고 나라와 인민의 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는데서 모범적인 이야기도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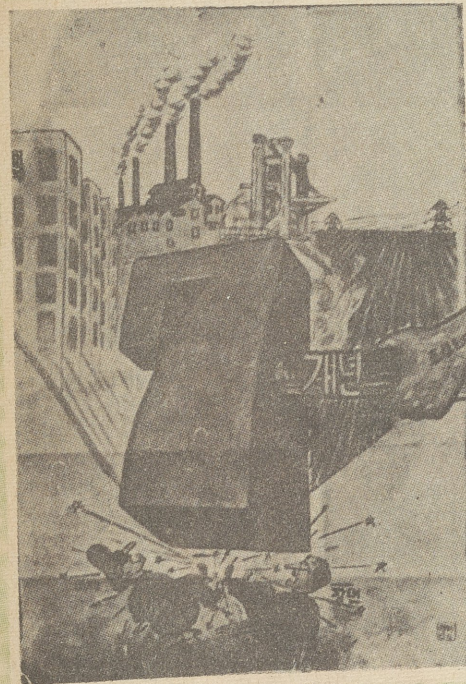
써 보내실 때에는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좋은 일을 어떻게 했으며 그것이 사람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고 있는가를 자세하게 써 보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소년 잡지
《소년단》 1961년 제 3호 (총 137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민 청 출 판 사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ㄱ—32101 값 25 전 150,000부 발행

우리들의 그림 페지

↑ 휘황한 7개년 계획
해주시 수양 중학교
3학년 1반 전 일영

↑ 파지, 파고무, 파유리 모으기에 나선 분단 동무들
개성시 만월 중학교 1학년 2반 정 영기

↑ 《통일의 문을 열자》
개성시 만월 중학교 1학년 3반 김 학성

↑ 《미군 나가라!》
함북 명천 공업 학교 1학년 5반 최 문식